



#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목 차

---

## I 회의 개요 06

1. 회의 정보
2. 참가자
3. 의제 목록
4. 회의 구성 및 일정
5. 종합 관찰

---

## II 본회의 결과 보고 18

1. 회의 개요
2. 회의 결과

---

## III 분과회의 결과 보고 32

1.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2. 교육분과 위원회(ED Commission)
3. 자연과학분과 위원회(SC Commission)
4. 인문사회과학분과 위원회(SHS Commission)
5. 문화분과 위원회(CLT Commission)
6.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위원회(CI Commission)
7.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분과 위원회(APX Commission)

---

## IV 제10차 국가위원회 총회 및 파트너스 포럼 결과 보고 96

1. 제10차 국가위원회 총회
2. 제42차 총회 계기 파트너스 포럼

---

## V 주요 선거 결과 104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

## VI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112

1.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협력  
세븐틴 세션 개최 결과

---

## VII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120

1. 참가 목적
2. 대표단 명단
3. 주요 활동

---

## VIII 참고자료 124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2. 사진 자료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I. 회의 개요

1. 회의 정보
2. 참가자
3. 의제 목록
4. 회의 구성 및 일정
5. 종합 관찰



# I 회의 개요

## 1 회의 정보

- 회의명 : 제42차 유네스코 총회(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기간 : 2023. 11. 7.(화) - 22.(수)  
※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2023. 11. 14.(화) - 15.(수)
- 장소 :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 2 참가대상 및 주요 인사

- 194개 정회원국 대표단 및 준회원국 대표단
-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옵서버 등

## 3 의제 목록

의제 번호	의제 제목
1.1	제41차 총회 개회
1.2	유네스코헌장 관련 회원국 교신 사무총장 보고(분담금 미납 회원국 투표권 부여여부 결정)
1.3	의제 채택
1.4	총회 의장 및 부의장, 각 분과위원회별 의장단 및 보고관 선출
1.5	회의 일정
1.6	다양한 단체의 참관인 자격 허용
2.1	2018-2021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2.2	집행이사회 활동 및 사업 이행에 관한 보고

의제 번호	의제 제목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3.2	2024-2025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3.3	2026-202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3C/5) 준비
3.4	잠정 예산 상한 채택
4.1	2024-2025년 회원국 제안 기념행사
4.2	예루살렘 및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36 이행
4.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51 이행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4.5	2030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베를린 선언에 관한 보고
4.6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결과 이행에 관한 보고
4.7	유니트윈/유네스코 석좌 활동
4.8	세계 측량학의 날
4.9	청년 포럼 결정사항
4.10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종료
4.11	소도서개도국(SIDS)을 위한 유네스코 운영 전략
4.12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 제안
4.13	중국 상하이 소재 신규 카테고리1 기관 설립 제안
4.14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관한 권고 이행 강화
4.15	스포츠, 교육, 발전을 통한 유네스코 가치 촉진제로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
4.16	유목 문명사 유네스코 컬렉션
4.17	우크라이나에서의 유네스코 활동
4.18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개정 규약 채택
4.19	국제 디지털 학습의 날
4.20	소년케어(語)의 날
4.21	세계 코딩의 날
4.22	국제 무형문화유산의 날
4.23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관한 타슈켄트 선언
4.24	가자지구/팔레스타인 상황이 유네스코 사명에 미치는 영향
5.1	활동 수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5.2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 협약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결의안 후속 조치
5.3	사무총장 혐의 유네스코 조사 절차

의제 번호	의제 제목
5.4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총회 공식 언어 인정
6.1	신경기술윤리에 관한 표준 설정 도구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예비 연구
7.1	공개교육자원(OER)에 관한 2019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2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3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TVET)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4	고등 교육에서 학습 및 자격 인정에 관한 199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5	박물관 및 컬렉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6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2011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7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8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9	다중언어주의 촉진 및 사용에 관한 200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7.10	국제 이해, 협력, 평화 및 인권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 초안
8.1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기여 관련 4년 주기 보고
9.1	유네스코 계정에 대한 외부감사 재정 보고
9.2	회원국 분담금
9.3	재정 규정 개정
9.4	미국의 2023년 분담금 사용을 위한 특별계좌 재정 규정
10.1	직원 규정과 지침
10.2	직원 급여, 수당 및 복리후생
10.3	유엔 공동 직원 연금
10.4	의료혜택기금(MBF) 현황 사무총장 보고
10.5	2023-2027년 인적자원 관리 전략
11.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및 본부위원회 보고
12.1	집행이사국 선거
12.2	차기(제43차) 총회 법률위원회 위원국 선거
12.3	본부위원회 위원국 선거
12.4	교육 차별 철폐 협약 관련 분쟁 해결 위원회 위원국 선거
12.5	국제교육국(IBE) 위원국 선거
12.6	정보사업 정부간위원회(IFAP) 위원국 선거
12.7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 선거
12.8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위원국 선거

의제 번호	의제 제목
12.9	불법이전문화재 반환촉진(ICPRC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2.10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프로그램(IPDC)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2.11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2.12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위원국 선거
12.13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위원국 선거
12.14	유네스코 통계국(UIS) 이사국 선거
12.15	아스완 누비아 박물관 및 이집트 문명 박물관 캠페인 집행위원회 위원국 선거
12.16	외부 감사관 임명
13.1	차기(제43차) 총회 장소

## 4 회의 구성 및 일정

### • 본회의(Plenary Meeting)

- 개회식 : 2023. 11. 7.(화)
- 폐회식 : 2023. 11. 22.(수)
- 일반정책토론(General Policy Debate) : 2023. 11. 7.(화) - 11.(토)
-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반정책토론 답변 : 2023. 11. 13.(월)
- 주요 내용 : 다자주의 강조, 분쟁지역에 대한 의사결정, 미국의 재가입 환영
- 논의 의제 :
  - 1.1 제41차 총회 개최
  - 1.3 의제 채택
  - 1.4 총회 의장 및 부의장, 각 분과위원회별 의장단 및 보고관 선출
  - 1.5 회의 일정
  - 1.6 다양한 단체의 참관인 자격 허용
  - 2.1 2018-2021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2.2 집행이사회 활동 및 사업 이행에 관한 보고
  - 3.2 2024-2025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 5.4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총회 공식 언어 인정
  - 12.1 집행이사국 선거
  - 13.1 차기(제43차) 총회 장소

•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 기간 : 2023. 11. 8.(수), 22.(수)
- 주요 내용 : 2024-2025년 중 통합예산 승인, 2026-2029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준비 논의, 청년 포럼 결정 사항 반영 권고
- 논의 의제 :
  - 3.2 2024-2025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 3.3 2026-202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3C/5) 준비
  - 3.4 잠정 예산 상한 채택
  - 4.9 청년 포럼 결정사항

• **교육분과 위원회(ED Commission)**

- 기간 : 2023. 11. 8.(수) - 10.(금)
- 주요 내용 : 교육을 통한 전지구적 도전 과제 대응, SDG4 및 미래 교육의제 설정과 관련 활동 지속, 평생학습과 세계시민교육 등 유네스코 교육 이니셔티브 중요성 재확인
- 논의 의제 :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51 이행
  - 4.5 2030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베를린 선언에 관한 보고
  - 4.7 유니트윈/유네스코 석좌 활동
  - 4.13 중국 상하이 소재 신규 카테고리1 기관 설립 제안
  - 4.19 국제 디지털 학습의 날
  - 4.21 세계 코딩의 날
  - 7.2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3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TVET)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4 고등 교육에서 학습 및 자격 인정에 관한 199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10 국제 이해, 협력, 평화 및 인권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 초안

• **자연과학분과 위원회(SC Commission)**

- 기간 : 2023. 11. 13.(월) - 14.(화)
-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역할 재확인, 유엔 해양 10년 및 유네스코 과학분야 정 부간사업에 대한 지속 관심, 오픈사이언스 권고와 SIDS 운영전략 주목
- 논의 의제 :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8 세계 측량학의 날
- 4.11 소도서개도국(SIDS)을 위한 유네스코 운영 전략
- 4.12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 제안

#### • 인문사회과학분과 위원회(SHS Commission)

- 기간 : 2023. 11. 15.(수) - 16.(목)
- 주요 내용 : 여하한 형태의 차별 철폐 지지, 신경기술윤리 규범 논의, AI윤리 권고 강조, 과학자 인권 문제 중시
- 논의 의제 :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14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관한 권고 이행 강화
  - 4.15 스포츠, 교육, 발전을 통한 유네스코 가치 촉진제로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
  - 4.16 유목 문명사 유네스코 컬렉션
  - 6.1 신경기술윤리에 관한 표준 설정 도구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예비 연구

#### • 문화분과 위원회(CLT Commission)

- 기간 : 2023. 11. 15.(수) - 16.(목)
- 주요 내용 : 문화분야 권고 강화 및 국제 거버넌스 개선 논의, 무형문화유산 관심 증대, 미국 재가입과 문화 분야 사업 강화
- 논의 의제 :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2 예루살렘 및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36 이행
  - 4.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51 이행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10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종료
  - 4.22 국제 무형문화유산의 날
  - 5.2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 협약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결의안 후속 조치
  - 7.5 박물관 및 컬렉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6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2011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7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위원회(CI Commission)**

- 기간 : 2023. 11. 13.(월) - 14.(화)

- 주요 내용 : 현실정치 문제의 연장 논의 경향 확인, 미국 재가입에 따른 CI 분야 사업 활성화 기대

- 논의 의제 :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6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 결과 이행에 관한 보고
- 4.18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개정 규약 채택
- 4.23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관한 타슈켄트 선언
- 7.1 공개교육자원(OER)에 관한 2019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8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9 다중언어주의 촉진 및 사용에 관한 200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분과 위원회(APX Commission)**

- 기간 : 2023. 11. 8.(수) - 10.(금)

- 주요 내용 : 소도서개도국(SIDS)의 중요성과 지역사무소 역할 강조, 현실정치적 갈등 지속 관찰, 집행이사국의 중요성 재확인

- 논의 의제 :

- 1.2 유네스코헌장 관련 회원국 교신 사무총장 보고(분담금 미납 회원국 투표권 부여 여부 결정)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1 2024-2025년 회원국 제안 기념행사
- 4.17 우크라이나에서의 유네스코 활동
- 4.20 소닌케어(語)의 날
- 4.24 가자지구/팔레스타인 상황이 유네스코 임무에 미치는 영향
- 5.1 활동 수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 5.3 사무총장 혐의 유네스코 조사 절차
- 8.1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기여 관련 4년 주기 보고
- 9.1 유네스코 계정에 대한 외부감사 재정 보고
- 9.2 회원국 분담금
- 9.3 재정 규정 개정
- 9.4 미국의 2023년 분담금 사용을 위한 특별계좌 재정 규정
- 10.1 직원 규정과 지침
- 10.2 직원 급여, 수당 및 복리후생
- 10.3 유엔 공동 직원 연금

- 10.4 의료 혜택 기금(MBF) 현황 사무총장 보고
- 10.5 2023-2027년 인적자원 관리 전략
- 11.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및 본부위원회 보고

## 5 종합 관찰

- 41차 총회(2021)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 차원에서 총회가 제한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번 42차 총회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전 세계 회원국, 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단체 등이 현장 참석함. 코로나 이후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생중계가 좀 더 활성화되어 현장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 미국의 재가입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음. 미국이 탈퇴 이전까지 밀려 있던 분담금 납부 계획과 함께 다시 유네스코 무대로 복귀하면서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에도 활기가 돌아왔음. 미국은 유네스코 다자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오면서 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화재 보호, 교육권 유지, 언론인 안전 등에서 유네스코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채택됨. 정규예산과 비정규예산이 미국 재가입과 함께 맞물려 증액되었고(통합예산프레임워크(IBF) 기준 18억440만 달러) 이는 지역사무소 단위의 현장 활동과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소도시개도국(SIDS) 관련 사업 등에 증액된 것을 확인함.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가 40년 만에 개정되어 “2023 세계시민교육 권고”가 된 것도 특기할 만함. 평화와 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이 권고는 권고 이행을 위해 한국이 세계시민교육상을 제정하여 1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수립함. 아울러 국제 STEM 교육을 위한 카테고리1 연구소가 중국 상하이에 설립되는 안이 통과됨.
- 신경과학기술윤리 권고가 제안되어 차기(43차) 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과학과 과학 연구자 권고 이행 강화, 언론인 안전,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또한 강조되는 등 유네스코의 규범 제정 및 이행 기능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독일의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소, 사우디의 AI연구윤리센터, 페루의 중남미 무형유산보호 지역센터 등 카테고리2센터 설립 또한 순조롭게 승인되어 유네스코 본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유네스코 본연의 임무들이 다양한 형태로 회원국과 협력하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다시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어 5회 연속 집행이사국 활동을 하게됨. 이밖에도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위원국에 당선되었으며, 42차 총회 기간과 맞물려 진행된 세계유산협약 총회에서도 세계유산위원국에 당선되어 4번째로 위원국 역할을 수임하게 됨.

-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제13차 청년포럼 중 세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이 유네스코 본부 1번 회의장에서 성대한 공연을 개최하였고 많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음.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문화를 통해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총회 중 고위급 회의, 파트너스 포럼, 각종 기념행사와 시상식 등이 어우러져 풍성한 분위기에 서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바하사어가 10번째 유네스코 공식언어로 채택되기도 함. 아울러 차기 43차 총회는 유네스코 본부가 아닌 2025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끄م.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II. 본회의 (General Policy Debate)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2. 회의 결과



---

## II 본회의 결과 보고

---

### 1 회의개요

#### • 일시

- 개회식 : 2023. 11. 7.(화)
- 일반정책토론 : 2023. 11. 7.(화) - 11.(토)
- 사무총장 답변 : 2023. 11. 13.(월)
- 본회의 보고 : 2023. 11. 20.(월) - 22.(수)
- 폐회식 : 2023. 11. 22.(수)

#### • 요지

-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강조 :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네스코 활동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함.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읽혀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보여 준 유엔 체제의 무기력함에 대한 반향일 수도 있으나, 각 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용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협력 및 관계에서 한국은 이 용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분쟁지역에 대한 의사결정 :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사태였으며, 거의 모든 수석대표들이 발언을 통해 자국 입장을 표명함. 대표적으로 아랍 국가 및 지지국가들이 제출한 가자지구에 대한 유네스코 분야 긴급지원 요청 DR과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우크라이나 관련 DR은 논쟁을 야기함.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거의 고립된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가자지구 관련 논쟁에서 재가입한 미국의 부정적인 의사표명에도, 서방 다수 국가들을 포함하여 중도적이거나 제출된 DR을 지지하는 흐름은 향후 유네스코 무대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의제를 다룰 때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함.
- 미국의 재가입 : 당연히 많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음. 미국의 재가입을 환영하며 갖는 많은 기대만큼이나 향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미국이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며 회원

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히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재가입으로 인한 예산의 대부분을 지역사무소 등 현장 활동에 할애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 회의 결과

### •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기조발언

- 케냐 작가 Ngũgĩ wa Thiong'o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간성을 확고히 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해체하려는 세력,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세력과 눈을 감아 우리를 달래려는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다” 문구를 인용함. 지난 75년간 유네스코가 추구해 온 이상은 인류애를 확고히 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세계 통합을 저해하는 균열, 특히 지정학적 분열, 기술적 격차, 기후 격차 등을 언급함.
- 기후변화 문제도 보건 위기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간 근본적인 상호의존성을 알게 하는 것임. 과제가 전 지구적이기에 해법 또한 그러해야 함. 따라서 분열과 양극화를 지양해야 하며, 무엇보다 포기에 저항해야 함. 카메룬의 철학자 파비앙 에부시 불라가(Fabien Eboussi Boulaga)의 말을 인용, “타자로 나아가고 타자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존재 이유이자 의미임.
- 10월 7일 이후 중동에서 발생한 비극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최근 몇 년간 시리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나고르노카라바흐, 예멘, 심지어 수단에서 발생한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기억해야 함. 이렇게 갈등하는 세계에서 유네스코는 유용할 수 있음. 유네스코 활동을 함께한 현재 100세를 넘긴 프랑스 철학자 에드가 모랭의 “긴박함을 위해 본질적인 것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본질적인 것의 긴급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문구를 인용함. 그리고 이전에 카르타고, 누비아, 베니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예멘, 이라크에서 행동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일 수 있음. 이러한 긴급 상황은 유네스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유네스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며,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
- 전략적 목표 중 첫 번째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임. 이런 점에서 세계유산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 협력과 대화의 정신 덕분에 우리는 우리 문화의 풍부함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약 50개의 새로운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재 100개가 넘는 유산이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더욱 그러함. 또한 리야드에서 우리는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기억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 개의 새로운 기억 장소를 등재함. (예 : 르완

다의 대량 학살 기념 장소, 프랑스와 벨기에의 제1차 세계 대전 장례식 및 기억 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 해군 기계학교에서의 추억 등)

-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문화와 창의성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와 창의성이 글로벌 의제에서 합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노력함. 이는 멕시코 세계문화장관정책회의(MONDIACULT 2022)에서 150개 국가가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 선언한 메시지임. 이와 동일한 비전은 인도 대통령이 주관한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도 널리 퍼져 2030년 이후 의제에서 문화를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삼겠다는 포부를 확립함.
- 전략의 두 번째는 교육의 힘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주제임. 지난 2년 동안 교육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원격 학습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지원한 우크라이나에서 조치를 수행하기도 함. 이는 또한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잔인하게 박탈당했던 60%의 여성을 포함해 40,000명의 청소년과 성인에게 비문해 퇴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역 사회와 직접적으로 수행한 활동의 정신이기도 함.
-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어린이 5명 중 1명이 아직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우선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음.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보편적 교육을 위해 2030년까지 1,500만 명 이상의 교사를 채용해야 함.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400만 명의 교사를 채용이 필요함. 또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계 절반의 국가, 유럽과 북미 10개국 중 7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기에 더 나은 급여와 대우를 고려해야 함.
- 이것은 평화, 인권,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의 의미이기도 함. 광범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환경 교육, 미디어 교육, 정보, 디지털 또는 기술 측면에서 평화 교육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려 함. 평화를 위한 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개정 권고는 공감, 인지 및 사회 정서적 기술, 협력과 포용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을 촉진하는 교육학의 중요성도 강조함.
- 디지털 및 기술 격변에 직면하여 교육을 다시 생각하기도 함. 기술, 특히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근거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음. 최근 간행물은 기술이 결코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
- 세 번째는 생물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임. 이 주제는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핵심이 될 것임.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는 환경 교육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특히, 우리는 2021년에 수행한 작업과 목록을 마친 후 학교 프로그램의 핵심인 환경 문제 통합을 위한 완전한 지침을 제시할 것임.

- 유네스코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첫째, 195개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134개국에 퍼져 있는 748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임.
- 유네스코는 기후 조절자이자 지구의 대부분인 해양 분야에도 기여함. 2년 전 유엔 해양과학 10년을 시작하면서 해양 보호를 주요 문제로 제기함. 이를 통해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모든 대륙에서 수백 가지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음. 빙하 중 3분의 1이 한 세대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는 2025년 세계 빙하 보존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가 약속한 것임.
-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바로 과학과 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역이 모든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오늘날 우리가 가짜 뉴스가 실제 전쟁을 어떻게 부채질하는지 볼 때, 근거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함.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사물을 잘못 언급하는 것은 세상의 불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함.
- 따라서 유네스코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원칙을 개발하고자 노력함. 이 중요한 작업은 2021년 해당 주제에 대한 권고안의 승인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추가될 것이며,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현재 50개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음. 인공지능에 대한 이 규제 도구는 향후 신경기술 윤리에 관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시사하기도 함.
- 여러분과 함께 유네스코를 변화시킬 수 있음. 우리는 중기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성평등이라는 주요 우선순위에 다시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미국의 재가입 이후 제출된 예산은 3분의 2가 회원국들의 희망에 따라 현장 네트워크를 위해 사용될 것이기에 현장 활동을 상당히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물론 책무성도 따라야 할 것임. 유네스코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도구이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 유네스코는 단결하여 행동하는 힘으로 남아야 함. 또한 미국의 기여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두 배로 늘어난 자발적 기부금 덕분에 우리 조직의 재정을 상당히 강화했음.
-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공익을 위해 책임, 대화, 단결, 윤리 등 기본 원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함. 애써주신 제41차 총회 의장과 집행이사회 의장에게 사의 표명함. “세계의 모든 문화가 집결되어 있는 우리 공동의 집인 유네스코가 아니라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구체화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기초발표를 마칩.

• **한국 수석대표(박진 외교부 장관) 기초발언 주요 내용**

- 세계는 기후변화의 긴급성, 세계 경제 둔화, 현재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고 있는 전쟁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음. 게다가 우리는 또한 아래와 같은 일들도 있음. 중동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통, 이 비극적인 시련으로 인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램. 인류의 고귀한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두 단결해야 함.

- 한국은 유네스코의 2022~2029 중기전략을 강력히 지지하며, 특히 청소년을 홍보하기 위해, 제13회 청소년포럼과 함께 진행된 특별공연에서 국제적으로 호평받는 K-POP 그룹 '세븐틴'을 소개함.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기념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놀라운 잠재력에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초대하고자 함.
- 우리는 또한 2024~2025년 프로그램 및 예산 초안(42C/5)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 기회를 빌어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온 사무국에 사의를 표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이 예산이 SDGs 이행의 완전한 성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크게 희망함.
-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교육 발전은 유네스코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음. 우리 한국인들에게 역사는 교육이 세계적 진보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이해하게 함.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백만 달러 규모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함.
- 과학은 인류 진보의 미래이자 지속가능발전의 초석임. 한국은 글로벌 기술과 전문지식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희망함. 우리는 문화가 대화와 상호 존중을 위한 강력한 도구임. 한국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개정된 틀을 지지하면서 유네스코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옹호함. 한국은 유네스코가 문화 분야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오늘날 한국은 현대문화의 새로운 기관차와도 같음. 문화다양성이 존중되고 인류 공동 유산의 풍요로움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는 한국과 유네스코 간 협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강조한 것이기도 함. 한국은 양자 관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경로를 사용할 수 있음.
- 먼저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임. 우리의 경험과 풍부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 간 화해를 장려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려 함.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내에서 성실하고 공평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평화를 향한 탐구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긴 여정임.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유네스코는 인류의 평화의 기초는 희망의 원천임.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손잡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주요국 대표 일반정책토론 연설 요지**

• **미국(Ms Michele Sison, 국무부 차관보)** : 유네스코에 재가입한 이후 첫 번째 총회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함.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켄 국무 장관, 그리고 미국 정부 전체를 대표하여 지난 6월 제5차 총회에서 보여준 우리의 복귀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따뜻한 환영에 사의를 표함.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간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참여를 장려하고 우리의 강력한 참여가 세계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유네스코 참여를 다시 하며 이 기구 및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유네스코는 창립 이후 유네스코 활동의 핵심인 교육, 과학, 문화 분야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거듭 입증하였음. 교육은 우리의 미래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임. 이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인 SDG4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우리는 특히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아프리카 우선순위와 전 세계 소녀 및 여성을 위한 STEM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소도서개발도상국의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 우리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필요성을 포함하여 소도서개발도상국을 위한 유네스코의 운영 전략에 집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다자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특히 우리가 전 세계의 갈등과 폭력 행위를 시급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더욱 그러함. 특히, 우리는 폭력이 어린이, 노인, 허약자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용감한 의료진, 구호 활동가, UN과 같은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이 포럼에 참석한 많은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으며, 우리는 깊은 동정과 애도를 표함. 실제로 우리를 하마스나 다른 테러리스트들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감 능력, 즉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이라 생각함. 우리는 10월 7일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고통을 서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함. 여성, 어린이, 노인 등 200명이 넘는 민간인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과 괴로움은 여전히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음. 우리의 공감 능력은 또한 가자지구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과 10월 7일 이후 몇 주 동안 삶이 뒤집힌 사람들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한 쪽의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쪽의 고통이 부정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님.

-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의 선두주자로서 미국 전 영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평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우리는 분쟁으로 인해 교육이 중단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해결하기 위한 유네스코 활동의

가치를 굳게 믿으며, 억압이나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가고 집 밖에서 일할 자유가 침해된 여성과 소녀의 권리, 문화유산 보호, 언론인 안전과 자유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 함.

-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문화 유적지를 보존, 보호 및 재건하려는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300만 달러의 국무부 보조금은 미국이 유네스코 재가입 조건의 일환으로 제안한 1,000만 달러의 자발적 자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이반키프 지역 역사박물관을 재건하고 고유한 민속 예술품 컬렉션을 보존하려는 유네스코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임. 2022년 2월 러시아의 이반키프 박물관 폭격으로 인해 박물관 건물과 귀중한 컬렉션의 일부가 파괴되었음.

- 또한, 미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함. 이를 위해 우리는 홀로코스트 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기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유네스코의 핵심 임무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포럼에서 가능한 가장 건설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함. 우리는 유네스코 사무국 및 기타 회원국과 계속 협력하여 유네스코가 이러한 우선순위와 기타 우선순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유네스코도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듯이, 미국은 우리가 전 세계와 협력하고 협력, 협력, 파트너십을 추구할 때 더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수 있음. 우리는 이곳 유네스코에서 강력하게 재참여하면서 여러분과 파트너십을 기대함.

• **일본(Mr Masahito Moriyama 문부성 장관)** : 미국 재가입을 환영하며 유네스코는 'age of division' 시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SDGs 실현을 위한 ESD 증진을 강조하며, 12월 ESD-Net 2030 Global Meeting 개최를 소개함. 학생들의 글로벌 이동 장려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은 글로벌 고등교육학위인정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을 비준함. 2033년까지 매년 500,000명 일본학생 해외로 유학, 400,000명 국제학생 일본으로 유학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아울러, 1974 권고와 관련하여 일본은 개정된 원리와 내용 확산을 지지함.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물, 해양, 재난방지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특히, 해양과학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2년 간 IOC 예산과 인력 강화를 환영하고, IOC 석좌교수인 Michida의 리더십을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표명함. 또한 '신경기술윤리 권고' 개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천명.

-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며, 기록유산(MOW) 프로그램 관련, 등재 시스템을 개정하여 2021년에 2년단위 신규 등재를 재개한 사무국에 큰 박수를 보냄.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기를 기대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상황이 예측불허로 매우 위태로워 일본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희생자 가족들과 UN 직원 및 인원의 손실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함.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함.

● **중국(Chen Jie 교육부 차관)**: 먼저, 이번 회의 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루마니아 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림. 오늘날 국제사회는 발전의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지속적인 무장 충돌,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이에 사람들은 유네스코가 평화의 장벽을 세우고,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모범을 제공하여, 평화와 발전의 길로 이끌 것을 기대함.

- 우리는 유네스코의 근본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정신으로 공감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해야 함. 열린 태도와 포용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혜를 수용하고,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통합을 통해 갈등의 씨앗을 제거하고 상호 학습을 촉진해야 함. 이러한 유네스코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화에 씨앗을 뿌릴 것임.

- 이에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국은 지난 2년간의 사무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새로운 C/5 문서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 중심, 결과 중심, 변혁 중심, 통합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여 조직의 5대 기능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함.

- 교육 개혁을 촉진해야 함. STEM 교육은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오랫동안 회원국이 강조하고, 교육 및 과학 분야 전문가가 기다려 온 일임. 이번 총회에서 중국 상하이에 STEM 교육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음. 이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협력의 정신을 반영함. 중국은 새 연구소의 설립이 현재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 교육 개혁을 촉진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음. 중국은 이 연구소의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디지털화 등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STEM 교육을 촉진시키고, 조직이 관련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를 기대함.

- 우리는 국제 규칙의 제정과 실행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 중국은 '인공지능 윤리 권고'와 '오픈사이언스 권고'의 채택을 지지함. 이는 인공지능 관련 윤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이 과학 성과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됨. 신경기술은 사회적 진보, 건강 및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신경기술윤리 권고' 제정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는 기술 윤리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하며, 새로운 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업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와 회원국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중추체로, 국가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힘을 모으며 발전을 촉진해야 함. 중국은 유네스코를 일관되게 지원했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9월 말 베이징에서 진행된 사무총장과 의 회담에서 중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을 말했고, 중국은 유네스코의 두 개의 주요 전략과 두 개의 주요 그룹, 아프리카 및 소도서개발도상국의 교육 개발, 세계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 실크로드, 노예의 길, 꾸리에 잡지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MAB, 지질공원, 해양학과 같은 조직의 주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임. 또한 중국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제5차 세계생물권보전지역총회(World Congress of Biosphere Reserves) 및 기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

- 중국은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발 계획(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글로벌 문명 계획(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을 실행하고, 인류의 공동 미래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려 함.

• **독일(Ms Katja Keul 연방 외무부장관)** : 오늘날 세계 공동체는 전쟁과 분쟁, 잔혹한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음. 중동, 우크라이나, 수단 등지에서 민족과 문화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다자주의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음. 그리고 어느 때보다 유네스코가 필요함.

- 우리 모두는 평화교육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과 임무에 동의함.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임. 다자간 포럼에서만 가능한 실제 목소리가 있음. 유네스코에서 우리는 교육을 형성하고, 문화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정보와 의사소통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만들고, 언론인, 미디어 종사자, 과학자를 위한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

-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국민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 공격을 비판하고,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여러 자리에서 강조했고, 동시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슴 아픈 고통을 목격하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여기 유네스코에서 우리의 임무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교육자들이 가르칠 수 없고, 교육 기관이 표적이 되고, 오용되고, 파괴되는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에 대해 생각하는 것임. 우리는 허위정보와 선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대표하지 않음.

-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 전쟁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이는 유엔 헌장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여러 다자간 포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음. 러시아

가 어떻게 문화 주체로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 했는지, 문화유산과 교육 기관을 대하는지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치는 유네스코 핵심적인 임무와 관계가 있음. 교사에게 50,000대의 노트북을 제공하고 15,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학교 심리학자에게 트라우마 상담을 교육했으며, 1,700명의 우크라이나 언론인에게 교육을 제공했음. 독일은 전쟁 발발 이후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과 교사를 독일 학교에 수용하고 있음.

-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기후위기로는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최고 기온과 강도를 알 수 없는 화재, 사이클론, 허리케인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종을 울리는 신호였음. 리비아를 강타한 재앙적인 홍수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끔찍한 영향임. 교육위기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있음. 정보 위기로는 민주적 대화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보의 만연하고 의도적인 확산. 이러한 상황에는 공동의 답변과 솔루션이 필요함.

- 유네스코는 대규모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임.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의 차질을 최소화했으며 교육 분야의 기술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독일은 앞으로도 유네스코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우리는 유네스코에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기여하는 회원국 중 하나임. 함부르크 평생학습연구소와 같은 독일의 유네스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정규예산을 통해 기부하고 있음. 또한, 독일국가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위원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아프리카 국가의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양자적으로 지원하기도 함. 그리고 독일에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2센터 설립을 제안했음. 유네스코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독일이 집행이사국 재선에 출마하는 이유이기도 함.

• **북한 (박용수 주유네스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 대사) :** 한국어로 발표함.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사의 표명함. 유네스코는 70년간 노력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영유아 교육회의 등) 및 문화 발전에 관한 세계회의 개최를 높이 평가함.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세력 간, 문명 간 충돌로 참상은 상존하고 있음. 유네스코의 역할이 다시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 과학, 문화에서 극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2030 달성 및 기후변화, 물위기, 식량위기에 기여할 것임. 정치적 목적으로 민족 간, 문화 간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보도매체들의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함. 자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국제질서 준수해야 함.

- 교육에서 차별을 정책화하고, 세계유산 공간을 악용하여 범죄적인 과거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당국의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제일 조선인 자녀들을 고등학교와 유치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교육 차별을 자행하고 있음.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

을 등재하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비판. 국제기구를 마음 내키는대로 들락날락하는 미국의 행태도 비판함.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혁하고 있음.全民학습제도를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2020년 4월 원격교육법이 채택되어 고등교육 기회도 보장됨. 2020년에는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육아법도 채택함. 북한은 앞으로 도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할 것임.

## • 의장단 선출

- 의장 : Ms. Simona-Mirela Miculescu (루마니아)
- 부의장 : 31개 후보국 중 2명의 부의장국 (아이티, 카타르)
- 분과위원회 의장
  - 교육(ED)분과위원회 : Mr. Gboadeh G. Gbilila (라이베리아)
  - 자연과학(SC)분과위원회 : Ms. Tamara Elzein (레바논)
  - 인문사회과학(SHS)분과위원회 : Mr. Monique Van Daalen (네덜란드)
  - 문화(CLT)분과위원회 : Ms. Elia Del Carmen Guerra (파나마)
  - 정보커뮤니케이션(CI)분과위원회 : Mr. Mykola Movchan (우크라이나)
  - 행재정사업대외협력(APX)분과위원회 : Mr. Vishal V. Sharma (인도)
  - 법률위원회 : Mr. Pierre-Michel Eisemann (프랑스)

## • 관찰 및 평가

- 11월 8일 오전 세션 중 총회 의장은 아랍 회원국 및 그 지지국가를 대표해 예멘이 제출한 가자 지구 관련 DR을 의제에 포함시키길 권고한 총회 사무국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APX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함.
- 11월 8일 오후 세션 진행 중 총회 의장은 4개국 기조연설자가 남았을 때, 오후 회의를 개최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Ms. Olena Zelenska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초대하여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 러시아 공격에 대한 피해와 고통 그리고 유네스코 지원에 감사와 향후 회원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11월 9일 오전 유네스코 가입 30주년을 맞은 북마케도니아 Mr. Dimitar Kova evski 총리와 Mr. Espot Zamora(안도라 공국 정부 수반)가 총회 의장의 제안으로 연설함.
- 11월 9일 오후 High-Level Segment : “(re)Thinking the Commons, Acting Together”와 “(Re)Thinking about the commons, acting together to protect them”를 주제로 3시부터 6시까지 열림.
  -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주요 혼란의 맥락에서 공동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하

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기후 혼란(climate disruption)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 1부 특별연사 : Dipesh Chakrabarty(시카고대, 인도 출신 역사학자)
- 현재의 갈등은 인류로서 우리의 집단적 존재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면 평화 구축 활동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열정을 분열시키는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문제 해결을 요구함. 그러나 점점 더 커지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오늘날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우리 존재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 뜻뜻해지는 지구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이러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현대사에 대한 행성적 관점(planetary view)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제도와 행동에서 평화, 정의 및 지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함.
- 2부 : 저명한 인사들이 좌담 형식으로 유네스코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디지털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5개 파트너 대학 연사들

- Ms, Silvia Giorguli, El Colegio de Mexico (COLMEX)
- Ms. Lourdes Arizpe Schlosser, El Colegio de Mexico (COLMEX)
- Mr. Madhav Das Nalapat, Manipal Academy of Higher Education (MAPE)
- Ms. Deborah Perez, Mohammed VI Polytechnic Univ.
- Mr. Sa Benjamin Traore, Mohmmmed VI Polytechnic Univ.
- Ms. Sarina Bakic, Univ. of Sarajevo
- Amila Zdralovic, Univ. of Sarajevo
- Senayon Olaoluwa, Univ. of Ibadan
- Huang Ping, Univ. of Tsinghua/Academy of Social Sciences

# III. 분과회의의 결과 보고

1.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2. 교육분과 위원회(ED Commission)
3. 자연과학분과 위원회(SC Commission)
4. 인문사회과학분과 위원회(SHS Commission)
5. 문화분과 위원회(CLT Commission)
6.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위원회(CI Commission)
7.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분과 위원회(APX Commission)



---

# III                   분과회의 결과 보고

---

## 1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8일(수) /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22일(수) /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 요지

- 2024-2025년 기간 중 총 18억 447만 7,299달러의 통합 예산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6억 8,544만 4,872달러는 정규 분담금, 나머지는 수익 및 자발적 기여로 총당함.
- 유네스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과 중기 전략(2022-2029)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26-2029 사업계획과 예산 준비를 위해 모든 회원국과의 협력이 진행될 예정임.
- 청년 포럼에서 제안된 결론이 검토되었으며, 유네스코 정책 및 활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 논의 의제 및 일정

- 3.2   2024-2025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42C/13)
- 3.3   2026-202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3C/5) 준비 (42C/7)
- 3.4   잠정 예산 상한 채택 (42C/14)
- 4.9   청년 포럼 결정사항 (42C/INF.13)

###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Vishal V. Sharma (인도)
- 부의장 : H.E. Ms Paula Alves de Souza (브라질)  
          H.E. Mr Richard M. Bosire (케냐)

## 2 교육분과 위원회(ED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8일(수) /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9일(목) / 10:00-13:00; 14:00-21: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10일(금)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 11월 8일과 9일 오전은 “평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장관급 고위 대화” 진행

### • 요지

- 고조되는 분쟁과 갈등,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 및 기후위기 과제 앞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었으며,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이 재확인됨. 글로벌 및 지역 리더십을 통해 전 세계 평생학습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혁신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유네스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의 재가입으로 증액된 사무국 예산이 교육2030 의제 이행 관련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됨.
- 2021년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출간하고 2022년 교육변혁정상회의를 통해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의 변화를 위한 각국의 정치의지를 확인한 유네스코가 SDGs 반기를 맞이해 교육의 변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활동들이 SDG4 달성 뿐 아니라 미래 교육의제 설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증거기반 정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교육 분야 지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논의해온 유네스코가 카테고리 1기관인 유네스코 통계원(UIS)과 증거와 데이터의 질 제고를 위해 강화하는 활동을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UIS 협력으로 2023년에 추진한 아태지역에서의 SDG 4 이행 중간점검 과정과 전 세계 각국의 교육 통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통계와 증거의 질을 개선하는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음.
-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을 기조로 각국의 교육 분야 경계 허물기와 유연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새로운 방식의 존재와 학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교육분야 개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제기됨.
- 세계시민교육, 직업기술교육(BEAR),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유네스코의 여러 교육 이니셔티브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개최 중 한국의 기여와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사의가 이어짐. 한국 전쟁 이후 교육을 통해 사회를 재건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2015년 세계교육회의를 통해 교육 2030 실행계획 도출에 기여했듯 한국은 상위 공여국으로서 교육 2030 이후 미래 교육의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담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논의 의제 및 일정

### 11월 9일(목)

- 7.10 국제 이해, 협력, 평화 및 인권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 초안
- 4.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51 이행
- 4.13 중국 상하이 소재 신규 카테고리1 기관 설립 제안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11월 10일(금)

- 4.5 2030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베를린 선언에 관한 보고
- 4.7 유니트윈/유네스코 석좌 활동
- 7.2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3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TVET)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4 고등 교육에서 학습 및 자격 인정에 관한 199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4.19 국제 디지털 학습의 날
- 4.21 세계 코딩의 날

##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Gbovadeh G. Gbilila (리베리아)
- 부의장 : H.E. Ms Lilian Whal-Tuco (미국)  
H.E. Ms Monika Korkosova (슬로바키아)  
H.E. Mr Andrés Moscoso (칠레)  
H.E. Ms Lubna Said Ghias (파키스탄)

## • 상세 내용

의제 번호	7.10 (42C/40)
의제 제목	국제 이해, 협력, 평화 및 인권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 초안
	Draft revised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사무국 보고(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Giannini) : 평화를 위한 교육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장관급 대화의 풍부한 기여와 증언을 언급하며 권고의 개정된 문안을 소개함. 획기적인 문서

라 표하며, 해당 문안이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힘. 본 개정 권고안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2년간의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인 협의의 결과물임을 상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속한 130여 개국 3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공유함. 1974년 개정 권고안 관련 정부간 특별위원회 의장인 케냐 상임대표 리차드 보시레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본 권고안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의미있게 연결하고 교육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국제이해, 협력, 더불어 사는 학습의 원칙을 불어넣는 독특한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40개 회원국과 2개 옵서버가 발언을 신청했으며, 포용적이고 투명한 개정 과정을 주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개정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몇몇 회원국들은 위원회에 문안 채택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네스코가 국가 차원에서 문안의 이행을 지원하고 개정 권고안의 원칙과 내용을 널리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함.
- 태국, 핀란드, 파키스탄, 스페인,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은 권고 개정의 시의적절성을 강조하며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여 변혁적 학습, 학습의 적절성, 세계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포괄된 데에 환영함.
-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한 한국은 동 개정안이 인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GCED상 제정과 백만달러 기여계획을 밝힘. 태국, 스위스,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혐오, 차별, 고조되는 국제갈등 등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러시아연방은 세계시민교육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란,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은 이 문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관련 국가 또는 하위 국가 법률,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함. 한편, 일본은 권고의 부록에 수록된 문서들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참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 미국은 또한 '발전에 대한 권리(right to development)'가 유엔의 핵심 인권협약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권리'로 표하는 데 대해 반대함.
- 옵저버로 참여한 OIDO와 CCIC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발맞춰 나가길 요청함.
- 벨기에는 사무국에 본 권고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회원국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당부함.
- 사무국 답변 : 권고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가이드라인과 이행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이라고 답변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 북한은 1974 권고 개정 논의 중 발언을 신청하여 인권, 교육 기본권을 수호하는 1974 권고가 여전히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해 무상교육 제도에서 제외하는 등 행하는 제도적 차별을 주장하고, 모든 이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함. 일본은 다른 세션을 통해 관련 주장을 반박하며, 법률에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인종, 민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 대한 교육 관련 제도적 수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일본의 교육 체계가 차별적이라는 전날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대응함. 북한은 추가 발언 신청을 통해 외교적 정치적 사유로 조선 고등학교의 무상화 배제가 불법이라는 2017년 7월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중단을 재차 촉구함.

의제 번호	4.3 (42C/17)
의제 제목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51 이행
	Implementation of 41C/Resolution 51 concerning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 사무국 보고 :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역, 가자지구, 골란고원 내 팔레스타인 교육기관 및 문화기관들의 활동 상황과 이를 지원하는 국제사회 협력 현황 모니터링 보고

※ 교육·문화 외에도 정보커뮤니케이션, 성평등, 청년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점령지에서도 유네스코의 필수 활동이 회원국, 정부간기구, NGO 등의 협업으로 지속되도록 회원국 기여와 사무국 활동 확대 요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화 장려를 전제로 유엔 결의안과 유네스코 헌장에 따른 포괄적 평화의 신속한 달성과 점령지 인권, 사회, 문화적 기반 보존 노력 지속과 지원, 모니터링 요청

○ 회원국 논의 내용 : 별도 논의 없이 사무국 제안으로 결정문 채택에 전원 동의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13 (42C/53)
의제 제목	중국 상하이 소재 신규 카테고리1 기관 설립 제안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ategory 1 institute in Shanghai, China

○ 사무국 보고 : STEM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카테고리 1 기관의

설립이라 포함.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자가 부족한 실정 가운데 특히 여학생과 여성에 대한 STEM 교육 부족 문제의 시급성과 국제적으로 전담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함. 제216차 집행이사회 결의 5.1.A에 따라 사무국에서 연구소의 정관을 마련하여 제42차 총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61개 회원국이 발언을 신청했으며, 전반적으로 STEM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어짐. 많은 회원국들이 중국의 카테고리1 기관 설립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그간의 타당성 조사결과 및 제216차 집행이사회에서의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의안 초안과 정관 마련에 대한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함. 일부 회원국은 정관을 검토하고 보고 메커니즘과 임원 선출방식,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함.

- 스웨덴은 설립될 카테고리 1기관이 유네스코의 임무를 보완하는 만큼 활동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정관이 더 명료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벨기에는 정관상 본부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본부에 대한 보고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사무국에서 본부 및 여타 기관들과의 임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 또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학습자에게 부담하겠다고 한 바, 공평한 접근 보장 방안을 문의함.

- 독일은 △ 제216차 집행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의견이 정관 초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여타 기관과 임무 중복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임원 선임방식, △ 재정지원 근거 및 △ 출범 전 임시조직 구성 및 준비 단계에 대한 사무국의 설명을 요청함. 일본은 오랜 논의 끝에 구상된 카테고리 설립 계획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향후 독일의 질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연구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관련 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당초 제43차 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금번 연구소 설립 결정에 대한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함.

- 호주는 STEM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환영하고 설립을 지지하면서도 기능 중첩 관련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사무국 답변 : (보고라인 관련) 여타 모든 카테고리 1 기관과 동일하게 새로 설립될 기관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가 총회에 활동을 보고하고 연구소장은 교육 ADG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업무 중첩 방지 및 균형잡힌 이사회 구성 필요 관련) 제216차 집행이사회 의결사항이 정관 초안 제2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 타당성 조사시 이루어진 맵핑 결과 전 세계적으로 STEM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담기관이 부재함. 유네스코 사무국은 STE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카테고리 1 기관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사무국의 비전에 따라 금번 신설되는 연구소가 부재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사무국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제216차 집행이사회 결의(para 5) 통해 확인

할 수 있듯 이사회 구성방식은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정관과 총회/집행이사회 유관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host 도시를 대표함.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모든 카테고리 1 기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며, 정관 제8조에 회원국, 국제기구 및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한 일련의 잠재적 자금이 포괄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함.

(금번 총회 이후 준비 단계와 일정) 주최국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활동이 주를 이룰 것임. 차기 제43차 총회 통해 선출될 연구소 이사회에 제출할 전략 및 업무 계획 초안 개발도 포함되지만 연구소 운영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밝힘.

(네덜란드의 신입 소장 채용에 대한 질의) 유네스코의 표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향후 구성될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될 예정임.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설립안+정관)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사무국 보고 :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교육 활동 가속화, 교육 분야 디지털 학습 및 인공지능 활용 제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화 교육 촉진, 국제 규범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유네스코의 규범적 역할 증진 등 교육 분야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우선영역인 아프리카와 성평등뿐 아니라 청(소)년과 소도서개도국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함. 문화 및 예술 교육을 포함한 부문 간 노력도 우선시할 것이라 표하며, 회원국과 파트너의 지원으로 야심찬 기금 모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총 22개 국가와 2개 옵서버가 발언함. 전반적으로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재가입으로 증액된 예산이 교육2030 의제 이행 관련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을 기대함. 교육 2030 의제에 대한 유네스코의 강력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각국이 교육변혁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지원 활동을 환영함. 고조되는 분쟁과 갈등, 팬더믹의 지속적인 영향 및 기후위기 과제 앞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교육 시스템 변혁(취약계층 및 재난후 상황 집중)과 SDG4 조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네스코의 리더십이 강화되길 주문함.

- 노르웨이, 케냐 등은 국제사회 교육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통계원 활동/예산 강화를 환영함.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회원국은 국제사회에 SDG4 모니터링과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 GEM 보고서와 UIS의 업적을 높이 평가함.

- 교육의 미래에 관한 2021 글로벌 보고서도 유네스코의 지적 역량과 기여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찬사를 받았음. 핀란드와 대한민국은 교육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하는 2024년 행사 계획을 더불어 소개함.
- 아이슬란드, 케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교육 파트너십을 환영하면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강화된 초점을 높이 평가함.
-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42 C/5에서 교육 예산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캐나다, 콜롬비아, 케냐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긴급 상황에서 중단 없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치하하고, 난민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캐나다는 원주민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교육에 통합하려는 전략계획을 들어 교육 포용성을 우선하는 자국 정책을 소개하며, 유네스코가 특히 장애인과 원주민 그룹, 그리고 학습자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대한 포용에 더욱 집중할 것을 장려함.
- 성과 기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부문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는데, 노르웨이는 유엔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교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핵심 교차 영역으로 강조되었으며, 유네스코 ASP 네트워크와 석좌 프로그램의 강화를 환영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맞춘 운영 노력을 장려함.
- 오피서버들은 비폭력, 평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간 대화 및 역사대화 촉진을 요청함.
- 사무국 답변 : 교육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리더십과 협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새로 재편된 SDG 4 고위급 운영위원회 덕분에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고 답변함. UIS와 GEM 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교육섹터가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새롭고 현대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2024년 2월에 열리는 교육통계 컨퍼런스가 교육 데이터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힘. 유네스코의 주요 학계 파트너십으로 캠퍼스 아프리카와 유네스코 석좌/유니트원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유네스코 활동을 진전시키고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5 (42C/19)
의제 제목	2030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베를린 선언에 관한 보고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for 2030 and the Berlin Declaration

○ 사무국 보고 : 사무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로드맵의 2대 핵심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ESD 2030 국가 이니셔티브’에 90여 개국이 관심을 표했다고 강조하며 고무적인 이니셔티브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ESD-Net 2030’ 통해 협력과 파트너십,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는 유네스코의 노력을 강조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총 36개 국가가 발언을 신청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로드맵과 베를린 선언의 후속 조치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환영함.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구상을 위해 변화와 재정향에 유의미한 도구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국가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각국의 규명하는 필요 역량을 소개하고 교육과정 반영 등의 노력을 공유함. 교육 분야의 사일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ESD-Net 2030 개최를 축하하고, 2023년 12월 도쿄에서 열리는 첫 세계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함. 2022년 교육변혁정상회의(TES) 통해 출범된 녹색교육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또한 환영되었으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간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복으로 가중되는 회원국의 부담 해소에 대한 사무국의 노력을 요청함.

- 태국은 국가이니셔티브 촉진 및 ESD 네트워크 구축 등 사무국의 ESD 2030 로드맵 이행 노력을 통해 교육 외 분야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해준 데 대해 환영함. 벨기에 등과 더불어 ASPnet이 학교 차원에서 ESD 이행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표함.

- 오스트리아는 SDG 4.7 달성에 있어 ESD가 유일한 동력이 아님을 지적하며, GCED와의 조화와 동등한 통합 강조함.

- 벨기에는 비공식 교육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분야로 강조함

- 케냐, 핀란드, 칠레는 미래를 위한 행동과 교육 변혁을 위한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필리핀, 그리스 등 많은 국가들은 교육 및 과학 부문과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유네스코 지정 장소를 지속가능성 및 기후행동을 위한 학습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고안에 공동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캐나다, 아이슬란드, 케냐,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은 병행되는 여러 이니셔티브에 대한 유네스

코의 참여 요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특히, ESD-Net 2030과 녹색교육 파트너십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인지, 유네스코가 보고 절차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증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 사무국 답변 : 회원국들의 지지와 그간 이행 조치에 대한 사의를 포함. 201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ESD 2030 로드맵의 이행 메커니즘으로 ESD-Net 2030이 설립되었다고 설명하며, 녹색교육 파트너십은 TES에서 이루어진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해 유엔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기후변화 완화, 적응, 회복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니셔티브임을 밝힘. 유네스코 사무국은 ESD-Net 2030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가이니셔티브 마련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끝으로 첫 녹색교육 파트너십 회의가 열리는 COP28에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한 아랍에미리트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7 (42C/21)
의제 제목	유니트윈/유네스코 석좌 활동
	Activities of the UNITWIN/UNESCO Chairs Programme

- 사무국 보고 : 사무국의 프로그램 관리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석좌 및 여러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전문성과 집단지성 활용 개선을 위해 수행한 사무국의 노력을 설명함. 특히, 유네스코와 회원국의 귀중한 자원인 동 네트워크가 유네스코의 규범 제정 과정, 주요 행사 및 아프리카 우선 운영 전략의 플래그십 프로그램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총 27개 회원국이 발언했으며, 전반적으로 사무국이 신청서와 갱신 요청을 적시에 처리하는 데 있어 가시적인 개선을 이룬 점과 여러 다른 팀에서 유네스코 석좌와 유니트윈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진한 활동에 대해 축하함. 각국은 유네스코 석좌와 유니트윈 참여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보 포괄, 유네스코 석좌와 ASPnet 간 협력 강화, 협력 우수사례의 문서화-홍보 및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함. 아울러, 여러 단계에 걸친 선정 과정으로 관련 프로그램에 조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니셔티브가 있는 경우 사무국이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

- 캐나다는 자국 내 폭넓고 다양한 석좌 활동을 소개하며, 유네스코의 임무 달성에 헌신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사무국이 특정 영역에서의 유네스코 석좌 지정을 독려하고자 한다면, 국가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요청함.

- 리투아니아는 보고서 내 북-남, 남-남협력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국가 목록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벨기에에는 석좌의 전문성 활용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환영하며, 석좌와 사무국간의 쌍방향의 호혜적 관계를 지지함. 영국과 함께 유네스코 정책 전반에 대한 석좌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표함.
- 네덜란드는 신규 및 기존 석좌들을 위해 우수사례, 웨비나 등 여러 활동 협력 관련 브로슈어 등 안내자료를 제공해주기를 요청하고,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와 함께 석좌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각국 국가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사무국 답변 : 지지와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제안을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고 답함. 유네스코 석좌와 유니트윈 회원 선정의 핵심 기준이 유네스코 우선 영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며, 향후 동 프로그램이 지역 및 국가간 협력을 더욱 촉진할 뿐 아니라 유엔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같이 여타 학계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국가당 연간 신청 건수를 제한(2건)한 바는 회원국들과 합의한 일시적인 조치라 표하며, 주제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방안과 같이 조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운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2024년에는 당장 변화가 어려움).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7.2 (42C/32)
의제 제목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5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의제 번호	7.3 (42C/33)
의제 제목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TVET)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5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의제 번호	7.4 (42C/34)
의제 제목	고등 교육에서 학습 및 자격 인정에 관한 199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5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 사무국 보고 : (의제 7.2 성인 학습·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 회원국 이행에 관한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여성의 학습·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취약집단의 참여율이 여전히 뒤처지고 있음을 강조함.

(의제 7.3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TVET)에 관한 2015년 권고) 본 권고의 이행에 관한 2차 협의 결과가 TVET 시스템의 전지구적 진전과 함께 응답의 3분의 2 이상이 심각히 우려하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권고 이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함. (7.4 고등교육 부문 학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1993년 권고) 사무국은 향후 권고 이행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4년 전 채택되어 전 세계 유학생의 1/4이 거주하는 24개국이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모니터링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총 32개 회원국과 1개 옵서버가 발언을 신청함. 3개 권고 이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며, 각국은 추진해온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소개함.

(성인 학습·교육 관련 권고 및 TVET 권고) 많은 국가가 제7차 CONFINTEA 회의의 성과로 도출된 마라케시 실행계획 관련 국제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함. 또한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IUIL)와 유네스코 지정 기술직업교육훈련센터(UNESCO-UNEVOC)의 리더십과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유네스코 석좌와 ASPnet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함. 지속가능발전교육, 디지털학습 등 강조되는 여러 교차 주제와 관련하여 TVET에 특히 주류화되어야 한다고 표명함. TVET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한국의 신탁기금사업으로 3단계에 접어든 유네스코 BEAR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TVET 프로그램의 높은 중도 탈락률에 대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고등교육 학위·자격 인정 권고) 4년 전 채택된 국제 협약의 중요성과 지역 협약과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함. 유네스코의 자격 여권(qualification passport)이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강조됨. 회원국들은 3개 권고안 이행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 독려함.

- 핀란드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인 학습·교육 권고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함.

- 성인 학습·교육 권고안에 대해 케냐의 DR 42 C/32 para 7에 대한 수정제안(각국이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in accordance with their legislation’ 추가)이 이루어졌으나, 권고의 의미를 퇴색할 것을 우려해 다수 국가가 반대했으며 수정안이 집행이사회 회의의 제안과 다르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라트비아의 의견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청이 이어짐.

※ 케냐 수정안 지지국: 북한, 오만, 우간다

※ 원안 유지 지지: 러시아,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그리스 등

- 사무국 답변 : 평생학습이 논의된 세 가지 권고안의 핵심이라 표하며, 유네스코의 업무와 SDG 4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각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의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함. 성인 학습·교육에 관한 권고의 수정제안 관

련하여 사무국은 케냐의 제안표현이 국제규범상 생소한 표현이라 밝히며, 양측의 다른 관점을 포괄하는 ‘as relevant’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관련 수정이 제안된 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핀란드는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규범이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핀란드는 최소한의 수정을 위해 ‘as appropriate’로 표현으로 재수정할 것을 제안함.)

○ 결정문 채택 결과

(성인 학습·교육 관련 권고) 수정안(42 C/32 para 7) 채택

(TVET 관련 권고, 고등교육 학위·자격 인정 관련 권고)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19 (42C/59)
의제 제목	국제 디지털 학습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Digital Learning
의제 번호	4.21 (42C/62)
의제 제목	세계 코딩의 날
	World Coding Day

○ 사무국 설명 : 제217차 집행이사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제안을 제출했음을 상기함.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세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포용성을 제고하고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표함. 시대적 과제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 혁신 및 디지털 세계시민성을 옹호하고 강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매년 3월 19일에 기념하는 국제 디지털 학습의 날과 매년 10월 29일에 기념하는 세계 코딩의 날 지정하는 제안을 소개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별도 논의 없이 결정문 채택에 전원 동의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 3 자연과학분과 위원회(SC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13일(월)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14일(화) /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 요지

-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유네스코의 과학 사업에 의미를 부여함.
- 유네스코 사업이 SDG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회원국은 유네스코 지정지역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언급하고 유네스코의 활동에 지지를 표명함.
- 정규예산 증액으로 IOC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회원국들은 환영하면서 유엔 해양 10년의 주도기구로서 IOC 활동을 평가함.
- 이번 총회에서 과학 분과에는 무논의 채택 의제가 많았으나, 사업 및 예산안 논의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사업(MAB, IHP, IOC)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전보다 지정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 규범 설정자로서 유네스코의 기능에 대한 회원국의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오픈사이언스 권고는 자연과학부문뿐 아니라 정보커뮤니케이션, 교육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AI 윤리 권고는 인문사회뿐 아니라 자연과학, 교육, 정보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 있어 유네스코에 부문간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권고에 대해 다층적, 학제적 접근을 하여 권고 이행과 확산에 기여함.
- 2023-2029 소도서개도국 운영 전략이 채택됨. 소도서개도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소도서개도국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태평양 섬나라들이 다수 해당되는 바, 아태지역 역내 협력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 모색 또한 필요함.
- 이번 총회에서도 국제 기념일과 기념해 선포 제안이 통과되었으며, 기념일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네스코 가치를 확산하면서 가시성을 높이고 지정 일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관련 기관에 안내가 필요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13일(월)

- 4.11 소도서개도국(SIDS)을 위한 유네스코 운영 전략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8 세계 측량학의 날
- 4.12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 제안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11월 14일(화)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IOC)

• 의장단 선출

- 의장 : Ms Tamara Elzein (레바논)
- 부의장 : Ms Paula Alves de Souza (브라질)  
Ms Nathalie Rossette-Cazel (북아일랜드)  
Mr Phil Mjwara (남아공)

• 상세 내용

의제 번호	4.11 (42C/51)
의제 제목	소도서개도국(SIDS)을 위한 유네스코 운영 전략
	Operational Strategy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 사무국(유네스코 자연과학 사무총장보 Brito)는 동 전략을 SIDS와 함께 준비해왔으며, 수정가 능한(rolling) 전략이며, 자원동원 방안, 지원사무소와 협력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함. 의장은 216차, 217차 집행이사회에서 논의(216EX/Dec. 5.I.C, 217EX/Dec. 4.I.A)했음을 소개함.

○ 회원국 논의

- 북아일랜드, 사모아,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세이셸 등 소도서개도국들은 4%→6%로 예산 증 액을 환영하며 SIDS 우호그룹 57개국에 사의를 포함.
- 아일랜드, 파키스탄, 호주, 노르웨이, 영국 등은 전략을 환영하며, 아프리카와 성평등, 수정가 능한 전략을 확인함.

-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원과 실행메커니즘 중요성 언급하면서 자원동원 계획 수립을 요청함.
- 베트남, 슬로베니아, 중국 등은 기후변화, 재해 관련하여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 역량강화 등을 언급함.
- 미국은 유네스코의 변화된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캐리비안과 태평양의 SIDS 활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은 ESD, DRR, 유엔 해양 10년과 연계를 언급함.

○ 의장은 회원국의 발언에 사의를 표하고, 자연과학 사무총장보는 회원국의 지지에 감사하며, rolling strategy 이행에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하고, SIDS의 필요 및 지역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전략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 의장은 결정문 채택을 요청하고, 호주는 이를 주도한 쿡아일랜드 대사에게 사의를 표하며, 결정문 초안 수정 없이 채택함.

의제 번호	4.4 (42C/18)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 독일이 제안한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소 설립 제안에 대해 승인하는 결정문을 논의 없이 채택함.

- 독일은 결정문 채택에 사의를 표하고 센터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원국에 협력을 요청함.

의제 번호	4.8 (42C/22)
의제 제목	세계 측량학의 날
	World Metrology Day

○ 42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co-sponsor)한 의제로 싱가포르와 모로코가 공동 제안자 참여를 요청했음을 사무국이 보고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 측량학의 날로 선포하는 결정문을 원안대로 채택함.

- 제안국인 카자흐스탄은 문명부터 일상생활까지 측량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면서, 기초과학사업과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며 파리협약 150주년인 2025년 양자과학기술의 해와 연계하여 활동을 제안함.

-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 and Measure(BIPM)은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OIMO와 공동 제안하였음을 소개함.

의제 번호	4.12 (42C/52)
의제 제목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 제안
	Proposal for the proclamation by the United Nations of 2025 as an international year of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

○ 217차 집행이사회에서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사무국에서 소개하고 유엔 총회에 2025년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결정문을 원안대로 채택함

- 제안국 멕시코는 회원국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중국, 라트비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이 양자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이 해의 활동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24년이 ICTP(국제이론물리센터) 설립 60주년임을 상기함.
- 유네스코 협력 NGO인 국제대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는 옵서버로 발언을 신청하여 유네스코 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에서 양자과학기술의 윤리를 다룰 것을 요청함.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사무국은 2024-2025 사업 및 예산안 초안을 소개함(42 C/5 문서 중에 Volume 1 Draft Resolutions 부분만 총회에서 검토).

- 자연과학은 6개의 output과 2개의 섹터간 output으로 구성되며, 과학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다른 기구와 차별성은 정부간 사업 네트워크와 다학제간 접근에 있다고 부연하고, 63개 카테고리2센터, 219개 석좌와 함께 인류에 기여하고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학-자연-사람 간 연계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함.
- 사업 가시성 증진에도 노력하며,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활동과 과학외교, 환경과학, 재해위험경감, 물, 소도시개도국, STEM 교육, 과학정책 사업을 소개하고,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역량강화, 성평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10년(2024-2033) 등을 통해 과학이 변화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소개함.

○ 31개 회원국이 이 의제에 대해 발언함.

- 많은 회원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의 역할을 요청했으며, 국제 협력과 역량강화, 아프리카 우선, 성평등, 지정지역의 기여, 과학자 안전 등에 대해 발언함.
- 캐나다는 SDGs 달성을 위한 협력과 토착민 참여, 성평등, 지정지역을 강조함.
- 프랑스는 학제간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함.
- 스웨덴은 청년 참여와 성평등을 강조하고, 지역사무소 예산 증액을 지지하며, 인권기반 접근 과학과 과학 연구 자유, 과학연구자 안전, 성평등 접근 주류화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의 동원력 발휘와 지속가능발전의 모델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언급함.
- 스위스는 2030 아젠다에 과학협력이 중요하며, 유엔 기구로서 SDGs 달성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석좌 프로그램 운영과 과학외교를 강조함.
- 북한은 모든 회원국의 혜택을 위한 재해위험경감(DRR), 오픈사이언스 플랫폼을 언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면서 생물권보전지역 현황 등을 소개함.
- 한국은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시대에 과학소양 증진에 유네스코의 활동을 요청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유네스코 지정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점차 늘어나는 유네스코 지정일과 지정해의 의미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오픈사이언스 및 AI윤리 등 유네스코 권고 이행에 섹터간 협력, SDGs 달성과 국제기구로서 유네스코의 존재감과 가시성 증진을 요청함.
- 체코는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사업과 지질공원 활동을 강조함.
- 아이슬란드는 자연재해 대응, 과학지식과 기초과학 중요성을 강조함.
- 핀란드는 오픈사이언스, 러시아는 기초과학, 가나는 환경교육을 강조함.
- 덴마크는 생물권보전지역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SDGs 달성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과학자 안전과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연계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함.
- 몽골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10년의 중요성을 언급함.
- 마다가스카르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식 공유와 자원동원,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과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간 협력을 강조함.
- 오스트리아는 과학 연구 향상을 위한 협력을 언급하고, 성평등과 아프리카 우선분야를 강조하고,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 지정지역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회복력 강화, MAB 전략과 청년 네트워크를 지지함.
- 일본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관리, 재해위험경감(DRR) 관련 회복력 있는 사회를 지지함. 특히 지진과 쓰나미 등 DRR과 기후변화 관련 학제간, 부문간 협력을 강조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고, 지정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강조하고 국제규범인 오픈사이언스 권고 이행을 강조함.

- 독일은 C/5 초안을 지지하며, 미국의 복귀에 사의를 표함. 성평등, 학제간 접근 강화를 지지하며, MAB 사업 관련 카테고리2센터 설립 승인에 사의를 표하고, 남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의 생물권보전지역 역량강화 활동을 소개하고, Group of friends of MAB 언급. 민간부문과 협력을 요청하고, IHP 9단계를 지지하며, 오픈사이언스 권고 이행에 독일에 진전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남반구 국가들과 국제 연구 협력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임을 소개함.
- 잠비아는 STEM 교육 지원 강화를 요청하면서 연구와 발전의 관계를 언급함
- 쿠바는 청년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물박물관 및 국제 네트워크를 언급함.
- 우간다는 오픈사이언스,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을 강조하고, 물평가프로그램(WWAP)과 성평등, MAB Youth 활동을 언급함,
- 영국은 기후변화 위기로 가뭄 빈번, 해수면과 기온 상승을 언급하면서 정책과 활동을 위한 과학을 강조함.
- 노르웨이는 유엔 시스템 안에서 유네스코의 활동과 SDGs 연계(alignment)를 강조하고 오픈사이언스 권고가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하며, 혜택 공유를 강조함.
- 뉴질랜드는 SIDS 전략을 위한 쿡아일랜드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고, 정보와 증거에 기반한(informed and evidence based) 정책 결정을 위해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착지식 연계를 위한 LINKS 사업을 언급하고, 2023년에 첫 세계지질공원을 지정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콜롬비아는 지식과 경험 교류를 언급함.
- 모잠비크는 수자원과 자연재해 피해를 언급하고 STEM 교육과 여성을 언급함.
- 튀르키예는 지진이 SDGs에 과학의 중요성을 환기했음을 언급하고 DRR과 평화 유지 강조, 청년 참여를 언급함.
- 중국은 국제협력과 오픈사이언스 촉진을 언급하면서 개도국에 혜택을 강조함. 기초과학의 해와 지속가능발전 과학 10년을 언급하면서 이행 계획 수립을 요청함. 2025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 개최 소식을 공유함.
- 자연과학사무총장보는 한국의 오픈사이언스 권고 이행을 위한 부문간 협력에 동의하면서 과학 투자와 과학 연구 자유와 안전 등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교육, 문화 부문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발언하고, 지속가능발전 과학 10년 활동으로 역량강화, 여성과학자 지원, STEM 전공자 감소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협력과 연대를 요청함. DRR 관련 취약지역 대응 활동을 언급하고,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은 회복력을

지닌 사회를 위해 유용한 네트워크임을 강조함. 또한 청년이 활동의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문화 전승을 위한 젠더 기반 접근을 언급하고, 녹색교육은 평생교육, 기후변화교육 측면에서 부문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표현의 자유, 거짓정보(misinformation) 관련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과 협력하고 있음을 소개함. 오픈사이언스를 위해 70개 이상의 파트너와 협력 중이며, 기초과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결정문 채택 : 수정 없이 원안대로 채택함.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정부간해양학위원회)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사무국(유네스코 IOC 사무총장 Ryabinin)은 IOC와 SIDS, 과학부문 간 협력을 언급하면서 2024-2025년 사업 및 예산안 초안을 소개함. 1960년에 40개국으로 시작한 IOC는 현재 15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 데이터, 쓰나미 대응, 평가 등을 위해 IHO 등과 협력하며 SDG14 달성에 노력하며, EU 지원으로 해양 공간 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 문해 등의 사업을 소개하고, 미국 재가입 등으로 예산이 1% 증가했으며, 예산 증액을 지지해준 54개국에 사의를 표함. 2024.3.1.부터 새로운 사무총장보(노르웨이 Vidar Helgesen)가 부임할 예정임을 소개함.

○ 33개 회원국 발언

- 다수의 회원국은 IOC 예산 증액을 환영하고, 유엔 해양 10년의 주도기구로서 IOC 활동을 평가함.
-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태국, 중국, 가나, 프랑스,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는 IOC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 유엔 해양 10개년에 IOC의 활동에 사의를 표함.
- 이탈리아, 오만, 튀르키예, 성빈센트그레나딘, 베네수엘라는 유엔 해양 10년을 지지하면서, 쓰나미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함.
- 토고는 SDG4 이행 기구로서 IOC의 가시성 강화를 요청함.
- 뉴질랜드, 쿡아일랜드는 토착지식 관련 IOC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관련 태평양에 미치는 영향 언급하고 유엔 해양 10년 관련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적극 참여를 희망함.
- 모로코는 유엔 해양 10년 관련 아프리카 활동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 환영하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와 청년, 성평등을 강조함.

- 일본은 사무국과 ADG의 활동에 감사하면서 BBNJ, 유엔 해양 10년, 아프리카와 소도서개도국 협력, 민간부문 예산 동원을 언급함.
- 포르투갈은 해양 분야 역량강화를 언급하면서 포르투갈의 훈련과정을 소개함.
- 스웨덴은 더욱 중요해지는 IOC의 사명을 지지하면서 신탁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 오명이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SDG14 달성과 부문간 협력 환영하고 증거에 기반한 과학 강조하고, 토착민의 안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해 해양 데이터 중요성 강조하고, 청년과 소도서개도국 우선그룹을 언급함.
- 미국은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 SDG14에 예산이 더 배정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소도서개도국과 아프리카에 IOC가 더욱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과제 해결을 위해 부문간 협력,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조함.
- 독일은 미국 복귀를 환영하면서 IOC 강화를 기대함. IOC는 '유네스코 왕관의 보석'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 관측, 쓰나미 대비, GOOS 정책 자문, 유엔 해양 10년, BBNJ에서 유네스코의 역할 언급하고 Ryabinin 사무총장정보의 성취에 사의를 표함.
- 체코는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쓰나미, LINKS와 협력을 언급하고 IOC 예산 증액을 환영함.
- UAE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8)이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환경 보전과 SDGs 달성에 노력 중임을 소개함.
- 영국은 사업 개발과 예산을 위해 노력한 사무총장정보의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과학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강조함.
- 캐나다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언급하면서 해법 기반 해양과학을 강조하고, 유엔 해양 10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해양-기후 넥서스,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건강한 해양 등을 강조함.
- 옴서버로 교황청은 예방적 접근, 해저 자원 관리, 해양 인식 증진을 언급함.
- IOC 사무총장정보는 회원국들의 활동 소개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해양 소양(ocean literacy) 증진, 해양과학의 정책결정 연계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 해양 10년에서는 해양 관리에 집중.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에 대한 새로운 조약에 대해 언급하고, 성평등 관련 현재 IOC 사무국 직원의 38%가 여성이며, equal balance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소개함.

○ 결정문 채택 : 수정 없이 원안대로 채택함.

## 4 인문사회과학분과 위원회(SHS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15일(수)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6일(목) / 10:00-13:00;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 요지

- 인종주의 반대 및 차별철폐에 대한 유네스코 활동에 다수의 회원국이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측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시민 우호그룹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함.
  - 이번 총회에서 신경기술윤리 규범 제정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43차 총회에 권고안을 상정하기로 하여 유네스코의 규범 설정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침에 대한 회원국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함.
  - 사무국에서는 AI윤리 권고 준비와 유사하게 내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025년에 정부간회의에서 논의하고 43차 총회에 상정할 예정인 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유럽 회원국 중심으로 과학연구 자유와 과학자 안전, 인권 중심 과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과학은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론인 안전, 예술가 지위 등과 유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번 총회에서 과학과 과학 연구자 권고 이행을 이한 정규 프로그램 설립을 승인함.
- ※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주도로 2023.10에 정책 대화를 개최한 바 있으며, 30여 회원국이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였음

### • 논의 의제 및 일정

#### 11월 15일(수)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6.1 신경기술윤리에 관한 표준 설정 도구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예비 연구
- 4.14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관한 권고 이행 강화

#### 11월 16일(목)

- 4.14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관한 권고 이행 강화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16 유목 문명사 유네스코 컬렉션
- 4.15 스포츠, 교육, 발전을 통한 유네스코 가치 촉진제로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

• 의장단 선출

- 의장: Ms Monique van Daalen (네덜란드)
- 부의장: Mr Mariusz Lewicki (폴란드)
- Ms Ada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 Mr Linto Mchunu (남아공)
- Ms Amal El Fallah Seghrouchni (모로코)

• 상세 내용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사무국(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 Ramos) : 2024-2025 사업 및 예산안 초안을 소개함. 인문사회부문의 핵심 분야로 인종주의와 차별철폐를 언급하면서 성, 인종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통합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사회변동관리(MOST), AI윤리, 과학자 지위 등의 권고 이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경과학의 프라이버시, 정신 통합 등의 이슈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며, 노예, 스포츠 - fit for life, 반도핑, 성평등, 아프리카, 청년, SIDS 분야 활동 소개함.

○ 38개 회원국 발언

- 다수 회원국들은 유네스코의 인종주의와 차별철폐 활동을 지지하면서, AI 윤리와 신경기술윤리 지침 제정과 이행 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 자유와 과학자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함.
- 캐나다는 인종주의와 차별철폐, 노예의 길에 대해 언급하고, 스포츠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바, 디지털 환경에서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유네스코 권고 이행을 강조함.
- 파라과이는 사회변동관리(MOST) 사업을 강조하면서 국가위원회 지침을 요청함.
- 덴마크는 인권, 표현의 자유, 과학자의 자유와 과학 연구 자유, 과학자 안전을 강조하고 성평등과 청년 참여를 언급함.

- 이집트는 인종주의와 차별, 혐오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슬람혐오 이슈에 관심을 요청함.
- 케냐는 AI 윤리, 노예의 길 사업과 아프리카 통사를 언급함.
- 중국은 AI 윤리, 생명윤리, 신경과학윤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연대 강조, 청년포럼 개최 소식을 공유함.
- 폴란드는 과학자 권고 이행을 강조하고, MOST와 학제간 접근을 언급함.
- 짐바브웨는 지역사무소 활동에 감사하면서 인문사회 분야 인력 보강 요청, 신경과학기술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MOST의 정책 결정 과정 중요 언급, 청년 역량강화를 강조함.
- 몽골은 2017년 권고 이행을 위한 연구 수행 중이며, 신경과학 규범 제정 지지하며, MOST 사업을 언급함.
- 콩코민주공화국은 AI 이용 관련 언급을 함.
- 오스트리아는 과학 자유와 과학자 안전을 강조하고, 성평등, 디지털 문해를 언급하고, AI 권고의 중요성과 권고 이행 강조하고, 청년참여, 인종차별철폐 포럼을 환영함.
- 마다가스카르는 과학자 권고 강조하고 청년 참여와 청년포럼 언급하고, 평화롭고 회복력 높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인문사회 부문이 중요함을 강조함.
- 말라위는 AI와 신경과학기술 윤리 강조하고 아프리카 지원을 요청함.
- 뉴질랜드는 C/5 초안을 지지하며, 청년 참여를 강조하면서 청년포럼을 환영하고 신경과학기술 윤리 규범을 환영하며, 과학연구자 권고와 기후변화에 과학 중요성 강조, 원주민 참여를 언급함.
- 노르웨이는 C/5 지지하며, 사업이 SDGs와 연계(align)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AI 윤리 권고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함.
- 튀르키예는 유네스코의 정책 자문을 강조하면서 노화사회에 대응을 언급하고, 인종주의, 차별과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을 요청함.
- 우간다는 outcome 9 강조, 윤리와 MOST, 청년 참여를 언급하고 노예의 길과 아프리카 통사를 언급함.
- 태국은 MOST 국가위 활동을 소개하고 과학정책, 아프리카사, 미래정상회의에서 원주민과 청년 목소리 반영을 요청함.
- 토고는 IBC, IGBC 등 생명윤리 활동과 과학 자유를 언급하고,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를 강조하면서 제시된 C/5를 지지함.
- 남아공은 청년포럼을 언급하면서 참가자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MOST의 중요성을 언급함.

- 자메이카는 캐러비안사를 요청하고 소도시개도국, 불평등, 기후변화, 반인종주의, 사회 통합, 스포츠 활동을 언급함.
- 일본은 C/5를 지지하면서 규범 제정 관련 회원국 이행 독려 강조하고, AI 윤리 권고 이행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혁신을 위한 청년의 중요성, 스포츠와 반도핑을 언급함.
- 독일은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하고, 파트너로서 청년 참여 강조하면서 청년포럼 지지, AI 윤리 권고와 신경과학기술윤리 지지를 강조함.
- 브라질은 노예의 길 30년사와 아프리카 후손 문제를 언급함.
- 핀란드는 기후변화와 청년포럼을 강조하고, 스포츠, 성평등, MOST을 언급하면서 과학과 인문사회는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함.
- 쿠바는 문화간 대화, 불평등, 차별철폐 우선순위를 언급하고 지역사무소 역량강화를 요청함.
- 한국은 인종주의와 차별철폐 활동을 지지하면서 세계시민 우호그룹 활동을 소개하고, AI윤리와 신경기술윤리 분야 유네스코의 규범설정 역할을 환영하면서 부문간 협력을 요청함. 13차 청년 포럼에 세븐틴 세션을 언급하면서 청년 참여를 강조함.
- 프랑스는 학제간 접근 강조, AI와 청년 중요, IBC 30년 언급, IGBC, COMEST 역할과 역량강화를 요청함.
- 아이슬란드는 인권기반 접근을 모든 유네스코 사업에 적용해야함을 강조하고, 과학 자유와 과학자 안전 언급, AI와 신경과학윤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 결정문 채택 : 집행이사회에서 수정된 결정문(42C/6 rev.) 채택

의제 번호	6.1 (42C/30)
의제 제목	신경기술윤리에 관한 표준 설정 도구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예비 연구
	Preliminary study on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relating to the desirability of a standard-setting instrument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

○ 사무국은 IBC가 수행한 보고서 결과를 소개하면서 신경기술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과 윤리적 문제, 이와 관련한 규범 제정 필요성을 설명함.

○ 44개 회원국과 옵서버 2개국 발언

- 다수의 회원국이 신경기술윤리 규범 제정에 대해 지지하면서 준비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를 포함함.

- 필리핀은 기술사용 관련 포괄적인(comprehensive) 성격의 규범 요청
- 우루과이는 권고 형태의 규범, 투명성과 포용성(inclusive), 보편성(universal)을 강조함.
- 콩고민주공화국은 뇌 관련 연구는 인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기술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야 하며, 수정안을 제출함.
- 영국은 AI 윤리권고가 모든 인류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명한 절차, 시민사회 참여 등을 참고하여 준비해야함을 강조함.
- 독일은 사무국 활동을 지지하면서 회원국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 이 기술의 혜택도 강조함.
- 한국은 규범 제정을 지지하면서 신경기술의 잠재력과 함께 개인 정체성,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AI 윤리 권고 제정 경험을 살려 투명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일정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엔 기구와 협력 현황 및 자발적 기여 등 재정 현황을 문의함.
- 프랑스는 IBC 보고서에 사의를 표하고 프랑스위원회의 부대행사(11.16) 개최 등 관련 활동을 소개함.
- 리투아니아는 구속력 없는(non-binding) 성격의 규범 환영하며, 역량강화와 모니터링을 강조함.
-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몽골, 태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은 적극 지지하면서 준비과정에 참여를 언급함.
- 이탈리아는 신경과학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리 도구 필요성을 강조함.
- 스페인은 지지하며 적극 참여할 것을 표명하고 학제성과 양심 있는 과학 필요성을 강조함.
- 스웨덴은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인권 선언과 OECD 등 관련 규범 고려하여 준비를 제안함.
- 일본은 규범 제정을 지지하면서 혼동이 없도록 다른 기구들과 협업을 제안하고 통합적, 학제간 접근을 강조함.
- 스위스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OECD와 인권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 규범 제정을 지지하면서 준비과정에 참여 의사를 표명함.
- 헝가리는 지지하면서 혜택을 높이고 공평한 접근을 강조함.
- 이란은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지식재산권을 언급함.
- 인문사회 사무총장보는 많은 지침과 구체적 의견에 감사하며,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강조도 확인함. 신경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일본, 독일, 영국)한 것도 확인함. 향후 절차는 12월 중에 카테고리 IV 회의 개최 초청장 발송,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 봄에 첫

회의 개최, 2차 회의 7-8월, 9월에 초안 작성 및 카테고리 II 회의 개최(총회 14개월 전), 2025년 1-3월에 최종 보고서 발간, 총회 4개월 전에 카테고리 II 회의 개최, 2025년 7월에 최종 권고안 작성 등 예정. 다양한 그룹과 모든 회원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권과 존엄성은 윤리의 문제이며,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음. OECD 등의 유사 규정을 확인했으며, 유네스코는 훨씬 폭넓고 보편성을 지님을 강조하고, 준비예산 관련하여 사무국에 인력 파견을 환영함.

#### ○ 결정문 채택

- 우간다가 준비 과정에 ‘multi-stakeholder meeting’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무국에서는 모든 과정을 결정문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결정문 초안은 이전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는 칠레와 케냐의 의견에 우간다가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4.14 (42C/54)
의제 제목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관한 권고 이행 강화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Science and Scientific Researchers

- 사무국은 과학자의 안전, 과학-정책 넥서스, 과학자에 대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 과학 연구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네덜란드 주도로 216차 집행이사회에서 과학자 안전과 성평등에 대해 논의했음을 소개함.

#### ○ 31개 회원국 발언

- 대부분 회원국은 권고 이행 강화를 지지하면서 과학자 안전과 과학 자유 중요성을 강조함.
-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모로코, 레바논, 튀니지, 필리핀, 오스트리아 등은 권고 이행과 과학 자유와 과학자 안전 지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과 과학자의 역할을 강조함.
-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과학자 안전에 영향이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은 지속가능발전에 과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권고 이행 강화를 지지하였고, 과학 자유와 과학자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프랑스는 과학 협력, 과학 연구자 자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대응을 강조함.
- 스웨덴은 과학의 자유와 과학자 안전은 민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며 권리에 기반한 과학 생태계를 위해 권고가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태국은 코로나19 시기에 거짓정보 문제를 지적하였고, 미얀마 과학자 문제 또한 지역적 맥락

에서 제기함.

- 콩고민주공화국은 과학자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과학자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강조함.
- 남아공은 기초와 응용과학에 투자를 강조하고 오픈사이언스 권고 이행도 언급하고, 아프리카 두뇌 유출을 언급함.
- 러시아는 유네스코의 사명 안에서 권고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영국은 윤리적 접근, 개방적 과학을 강조함.
- 중국은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건전한 과학 생태계를 강조함.
- 네덜란드는 과학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과학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 자율성을 지니도록 정책 필요하며, 권고 이행 관련 노력. 집행이사회 의제에 대한 33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103 정책대화에 35개국 참여했음에 사의를 포함.
- 부르키나파소는 국내 과학자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함.
- 카메룬은 과학자의 인권은 SDGs 이행에 중요함을 강조함.
- 불가리아는 권고 이행 강화를 지지하며 과학 자유와 과학자의 안전을 강조함.
- 자메이카는 사무국 원안을 지지하며, 성공적 이행을 위한 회원국 지지를 요청함.
- 인문사회 사무총장보는 2017년 권고 이행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에 감사하며 과학 자유, 인권 기반 접근 재확인했으며, 한국의 질문에 대해 프로그램은 정책대화에서 34개국이 승인하였고, 포괄적,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과학이 주도하는 사회, 과학-정책 넥서스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부연함.

#### ○ 결정문 채택

- 우간다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회원국에 포함되고 중복되고 있어 삭제를 제안하여 para 2에서 삭제함.
- 콩고민주공화국은 para 3에 '여성과 청년의 여건(condition) 강조' 추가를 제안하여 논의 끝에 'condition'을 'role'로 수정(이집트) 반영됨.
- 러시아는 para 4에 'in close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를 제안하였으나 유네스코는 정부간 기구이므로 중복된다고 다수 회원국이 반대하여 반영하지 않음.
- 이란은 para 6 마지막에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publication of scientific papers in scholarly journals' 추가를 제안하였으나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은 과학 출판은 회원국(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반대하였고 사무국은 해당 내용은 권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 등은 이란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네덜란드가 para 6은 수정하지 않

고 회원국의 이행 강화를 요청하는 para 7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이란의 제안은 의장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para 7을 채택함.

- 초안을 일부 수정 및 추가(붉은색 표시)하여 채택

2. Welcomes the progress made by Member State in implementing the 2017 Recommendation on Science and Scientific Researchers, **including in African countries;**

3. Invites all Member States to strengthen their efforts to ensure the full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the 2017 Recommendation on Science and Scientific Researchers, **emphasizing the role of women and youth;**

**7. Calls on Member States to implement all elements of the 2017 Recommendation on Science and Scientific Researchers including scientific research and its products.**

의제 번호	4.4 (42C/18)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국제 AI연구 윤리센터’ 설립 제안을 의장이 토론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함.

의제 번호	4.16 (42C/56)
의제 제목	유목 문명사 유네스코 컬렉션
	UNESCO Collection on History of Nomadic Civilizations

○ 몽골이 6개국의 지지를 받아 제출한 의제로 유목 문명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유네스코 컬렉션 발행 제안

○ 회원국 발언

- 노르웨이, 케냐, 카자흐스탄, 헝가리, 중국, 러시아, 인도, 코트디부아르 등은 유목민이 기후변화 등에 취약하여 동 유목문명사 발간을 지지하고, 문화다양성 보전과 인간의 적응력, 지구적 연결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대함.

- 아제르바이잔은 6권의 구성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능성 질의하고, 이에 대해 몽골은 6권은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 역사를 기술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에도 참여가 열려 있다고 답변함.
- 인문사회 사무총장보는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학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부연함.

○ 결정문 채택 : 원안대로 채택함.

의제 번호	4.15 (42C/55)
의제 제목	스포츠, 교육, 발전을 통한 유네스코 가치 촉진제로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s as the Catalyst of UNESCO Values through Sport, Education and Development

○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가 공동 제안한 의제로 유네스코가 위치한 파리에서 열리는 2024년 올림픽 계기에 스포츠와 체육의 가치, 평화교육 등을 촉진하고자 제안함.

○ 회원국 발언

- 다수 회원국은 스포츠와 체육교육의 기여, 유네스코의 fit for life 사업을 언급하면서 동 제안을 지지함.
- 프랑스, 몽골, 파라과이, UAE, 남아공, 짐바브웨, 자메이카, 네덜란드, 헝가리, 중국 등은 스포츠가 관용 증진,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언급하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보편적 가치와 성평등을 강조함.
- 러시아는 올림픽 참가에 차별을 받았다면서 IOC 정신과 시민권을 언급하고, 이란은 포용과 국제협력에 스포츠의 기여와 공평한 기회를 강조하면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제재를 언급함.
- 우간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은 반도핑, fit for life 등 사무국 활동을 환영하면서 동 의제를 지지하며, 사무국에 IOC와 협력을 문의함.
- 그리스는 올림픽의 철학적 이상과 쿠베르텡의 기여를 언급함.
- 폴란드는 회원국의 의견과 지지에 감사하고 공동의 책임, 지속가능발전에 스포츠와 체육교육의 역할과 기여를 환기함.
- 인문사회 사무총장보는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에 사의를 표하고 스포츠 장관회의(MINEPS)가 양질의 스포츠, SDGs, 인종주의 반대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국제 스포츠대회를

가 좀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함.

○ 결정문 채택

- 브라질은 서문 네 번째 단락 다음에 fit for life와 인종주의 차별 반대 내용 추가 제안하여 반영
- 아제르바이잔은 MINEPS VII 다음에 ‘Baku Outcome Document’ 추가를 제안하여 서문과 결정문 본문에 반영
- para 3에 브라질이 표현 수정을 제안하여 ‘in particular with regard to’을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로 수정하여 채택
- para 4에 카메룬이 순서 조정을 제안하여 ‘quality physical education’을 중간으로 조정
- para 7에 카메룬이 파리 외에도 더 추가를 제안하였으나 파리 올림픽 계기로 제안한 의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함
-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택함 (붉은색 추가)

*Further recalling* 215 EX/Decision 42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Implementation of the Fit for Life initiative and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MINEPS VII - **Baku Outcome Document**)”, adopted at its 215th session, which encourages the deployment of sports to address contemporary crises and build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societies,

*Recalling* 216 EX/Decision 40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Bicycle for all” - Bicycle for sustainable and healthy lifestyles” adopted at its 216th session,

*Also recalling* 217 EX/Decision 38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Fit for Life and the fight agains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and through sport”, adopted at its 217th session, which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the inclusion of the fight against all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into the Fit for Life perspective, whenever appropriate,

*Noting* the central importance of the Outcome Document adopted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MINEPS VII - **Baku Outcome Document**) to guide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work in and through sport and recognizing the good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it for Life initiative, including the launch of the Fit for Life Global Alliance,

3. *Encourages* Member States to use sport as a tool to promote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nd to raise awareness about sport's value and importance for humanity,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lympic and Paralympic heritage;
4. *Supports* UNESCO's implementation of the MINEPS VII - Baku Outcome Document and activities under Fit for Life priority areas including inclusive sports ecosystems, youth empowerment, **quality physical education**, impact investment in sport and a label 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legacy of major sports events including the Youth Olympic Games (YOG), **and quality physical education**;

## 5 문화분과 위원회(CLT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15일(수) / 11: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16일(목) / 10:00-13:00;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 요지

-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한 유산 지역과 박물관 파괴, 소장품 도난 및 불법 반출입 우려 등에 대해 총회 참가국 모두가 공통된 우려를 표명함.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가 문화 분야 협약 및 권고 등을 통해 구축해온 국제 기준의 실효성 문제와 회원국 및 협약 가입국의 책임감 있는 국제 기준 준수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됨.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거버넌스 개선 논의(문화 협약의 절차규칙 및 의사결정과정 조정)와도 맞물려 있음.
- 전통지식과 기술, 구전과 연행 등을 골자로 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여느 때보다 높아짐을 확인함. 2003년 무형유산 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제안된 세계 무형유산의 날 지정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센터의 카테고리 2기관 재인증은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의 원천이며 교육,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등과의 협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무형문화유산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향후 국제사회 공동의 인식 제고와 활동 강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재가입에 탄력을 받아 42C/5 신규 사업 및 예산안이 확정 통과됨. 이로써 만성적 예산 적자와 글로벌 팬데믹으로 영향 받아왔던 문화 분야 필수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 담보를 위한 지역사무소 중심의 사업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 논의 의제 및 일정

### 11월 15일(수)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2 예루살렘 및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36 이행
- 4.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51 이행
- 5.2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 협약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결의안 후속 조치

### 11월 16일(목)

- 4.22 국제 무형문화유산의 날
- 4.10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종료
- 7.5 박물관 및 컬렉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2015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 7.6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2011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 7.7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 의장단 선출

- 의장: H.E. Ms Elia del Carmen Guerra Jurado (파나마)
- 부의장 : H.E. Ms Dita Limova (체코)  
H.E. Ms Juvener Mahilium-West (필리핀)  
H.E. Mr Jean Paul Koudougou (부르키나파소)

## • 상세 내용

- 인사말(Jurado 의장) :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으나 여전히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과 문화 분야 다양한 활동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특히 다양성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토착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유네스코가 문화 분야 협약을 통해 제시하는 국제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로 협약 비준율이 높아지길 희망함. 유산의 경우 무형유산에 대한 가시성 증대와 유산에 연계된 기억 및 기억 장소의 보존 중요성을 강조함. 창의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글로벌 팬데믹 외에도 시기술로 인해 생존과 창작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 또한 강조함. 문화가 미래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기초로 한 공동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사무국 보고(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Ottone) : 글로벌 팬데믹 등 위기에 특히 취약한 문화 창의산업 촉진 및 유산 보호 노력 증진을 위한 문화 영역 6대 협약 이행 기제 강화, 무력충돌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문화재 불법거래 사례 증가 대응과 회원국 역량강화, SDG 달성 및 Post-SDG 논의시 문화의 단독 의제로서의 위상 및 기여도 강화, 교육 및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등과의 범분야 협업 강화를 통한 다원적 사회 달성과 MONDIACULT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창의적 역량 배가를 목표로 향후 2년간 사업 및 예산안을 준비함. 예산은 41C/5 대비 4,000만 달러 정도 상승했으며, 정규예산의 비중을 늘리고 자발적 기여 등 비정규 예산과의 차이를 줄여 필수 사업 이행의 안정성 제고 및 유네스코의 중점 분야 인 성평등과 청년층의 문화 관련 사업 수혜 및 참여 촉진을 염두에 둠. 문화 분야 사업들의 성과에 기여해준 회원국과 다양한 전략파트너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펀딩갭 부족분을 조속히 메울 수 있도록 지속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총 56개 국가(오전 세션 24개국, 오후 세션 32개국)가 발언을 신청함. 전반적으로 문화 협약 비준과 관련 프로그램의 국내 실행 유용성을 강조하는 한 편, 분쟁지역의 유산 보존문제 및 기후변화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함. 또한 MONDIACULT 선언을 환영하며 2022년 회의를 통해 재확인한 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중요성과 Post-2030 의제의 독립된 목표 수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 북한 : 유무형 유산 종류에 상관없이 신규 유산 등재를 위해 다른 회원국 및 유네스코 사무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힘. 2022년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양냉면을 소개하며, 세계유산 잠정목록 준비 및 고려청자 제조기술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사무국 승인을 받아 지원될 예정임을 소개함.
- 덴마크 : Post-2030을 위한 문화 의제 수립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적극 필요함을 강조함.
- 스웨덴 :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 중요성 및 성평등 우선 고려를 강조하며, 특히 성소수자와 토착민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함.
- 뉴질랜드, 필리핀 : 문화 의제 내 기후변화 및 토착민에 대한 적극적이 고려 강조함.
- 영국 : 문화와 타 분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목적을

위한 유산지역 활용과 커리큘럼 개발 노력을 소개함.

- 독일 : 미국 재가입 및 예산 확대를 환영하며, MONDIACULT 선언 이후 차기 회의 및 정기 문화정책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한편 독일이 주도하는 공정문화(fair culture) 논의를 소개함. 또한 무분별한 반이스라엘 정서(antisemitism)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함.
- 인도 :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유산 분야 국가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함
- 오스트리아 : 전쟁으로 인해 생계 및 활동에 영향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을 소개함.
- 튀르키예 : 점차 수가 증가하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전체 수량 및 퀄리티 관리 필요성을 역설함.
- 팔레스타인 :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문화 협약의 기준을 국내적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 중임을 소개하고 적극 신규 유산 등재도 준비 중임을 설명함. 아울러 가지지구 공습에 대한 문화재 파괴와 창작활동 종사자의 지원 관련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사의를 표함.
- 사무국 답변(ADG Ottone) : 56개국 발언 중 MONDIACULT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가 42개국이나 됨을 확인함. 또한 다양한 토착민의 문화적 원천 섭렵과 교육과의 협업이 향후 문화 섹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재확인함. 미국의 재가입 덕분에 예산 증대 및 다양한 필수 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국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음. 42C/5 사업 및 예산 통과 이후 창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과 활동을 회원국 정부, 국가위원회, 지역 사무소 및 유네스코 협력 파트너들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2 (42C/16)
의제 제목	예루살렘 및 관련 결의안 41C/Resolution 36 이행
	Jerusalem and the implementation of 41 C/Resolution 36

○ 사무국 보고 :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1981년 위기에 처한 유산으로 지정)이 개발과 고고학적 발굴, 장애물 설치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사회의 기부·기여로 보존·복원 인력의 역량강화와 유산의 고유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협업하도록 요청

○ 회원국 논의 내용 : 별도 논의 없이 사무국 제안으로 결정문 채택에 전원 동의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10개국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모델 절차규칙 도출 및 각 협약 의사결정 회의 및 공개작업반 설치, 협의과정 진행 등을 통해 표제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무국에 사의를 표하고 동 작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쿠바 : 사무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쿠바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인해 협약 이행을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임을 설명함.
  - 폴란드 : MONDIACULT 선언 및 정기 글로벌 문화정책 리포트 발간 등 후속조치 준비가 동 문화 협약 간 절차규칙 및 의사결정 절차의 간극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 코트디부아르, 가나 : 절차규칙간 조화 추구 작업시 문화 분야 6대 협약에 대한 동등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함을 강조함.
  - 체코, 인도 : 사무국의 노력과 현재 진행상황을 환영하며, 국내 수준에서의 협약 이행 방식에 대한 면밀한 연구 선행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동 작업을 위한 협의·대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희망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22 (42C/63)
의제 제목	국제 무형문화유산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의제 설명(폴란드 Mariusz Lewicki 대표부 대사) : 동 의제는 2003년 세계무형문화유산협약 제18차 정부간위원회(2023. 12. 예정)의 제2차 의장단 회의시 폴란드가 제안하였으며, 이미 65개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 의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음. 2003년 10월 17일 창설된 후 올해로 협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협약 창설일을 ‘세계 무형유산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협약의 국제적 가시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원천이 되는 무형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보호하며 국가간 협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한국 포함 35개국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폴란드의 의제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세계무형유산의 날 지정을 통해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 및 가치 제고, 국제협력과 다양한 활동 수행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국 : 폴란드와 공동 제안국으로서 세계 무형유산의 날 지정을 적극 동의하고 환영함.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과 무형유산 보호 활동 증진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

로 기대함.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03년 협약 창설 20주년을 기념하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비전을 선언한 바 있음. 지식과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상기하여 동 국제 기념일 지정이 전 세계 가치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함.

- 헝가리 : 36차 총회(2011) 의장 역할 수행시 경험에 비추어 이후로도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꾸준히 증진된 덕분에 무형유산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협력이 증진되고 국제기념일 지정 제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환영함. 이번 제안으로 모두가 무형유산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길 희망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10 (42C/24)
의제 제목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종료
	Follow-up to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on the closure of the Fund

- 사무국 보고(ADG Ottone) : IFPC는 1974년 설립 이후로 문화와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유용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창설 및 동 협약에 의한 문화다양성기금(IFCD)이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중복되었고 2006년 이후 실질적인 재정기여가 끊김. 이에 IFPC기금 행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 내 잔액(미화 263,626.55달러)을 IFCD로 이전할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제17차 2005년 협약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토고는 그 수명이 다한 IFPC기금의 IFCD로의 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창의산업 종사자 연수 및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 연수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길 사무국에 요청한다고 언급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7.5 (42C/35 and Corr.)
의제 제목	박물관 및 컬렉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2015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5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their Diversity and their Role in Society

○ 사무국 보고(ADG Ottone) : 표제 2015년 권고의 두 번째 국별 보고서 취합본 총회 보고(217차 집행이사회 검토 완료: 한국 포함 40개국 제출 완료)

※ 회원국 박물관 및 수집품 관련 법률 구비 현황, 관련 통계 업데이트, 팬데믹 상황을 포함하여 회원국이 취한 기능 강화 정책/활동, 인식제고 및 모범사례 등)

○ 회원국 논의 내용 : 23개국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동 권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과테말라 : MONDIACULT에서의 논의 내용과 연계된 문화재 반환 환수 관련 추가 조항을 2.bis로 제안함(페루가 이에 재청함).

- 스위스 : 2011, 1980년 권고의 이행보고서 형식에 비해 질문이 많고 복잡함. 이를 간소화하고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하면 보고서 제출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으로 지역 박물관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문화재 불법 반출 입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 러시아 : 러시아 예술품 전시와 관련한 정치적 배제 등을 경계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과테말라와 페루가 2.bis 조항을 제안하였고, 독일이 해당 문구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가 논의를 거쳐 철회하고 다음의 추가 제안 초안을 포함한 결정문이 채택됨. 대신 독일은 아래 이탤릭체 표기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을 구두 보고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함.

- 추가된 부분 : (2.bis) Calls on Member States to prompt the implementation, in the museum sector domain, of the commitment expressed in the MONDIACULT Declaration of 2022 to combat illicit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and (invite them) to contribute to an open and inclusive international dialogue for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ncluding illegally exported goods, to the countries of origin under the aegis of UNESCO;

의제 번호	7.6 (42C/36 and Corr.)
의제 제목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2011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 사무국 보고(ADG Ottone) : 표제 2011년 권고의 세 번째 국별 보고서 취합본 총회 보고(217차 집행이사회 검토 완료: 69개국 187개 도시 보고서 제출, 한국 미제출)

○ 회원국 논의 내용 : 21개국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표제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권장하는 사무국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자국의 관련 활동을 소개함.

- 덴마크 : 표제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타 분야와의 협업 및 해당 활동에 청년층 참여를 더욱 권장할 수 있어야 함.
- 중국 : 2017년 이후 해당 권고의 국내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 및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이탈리아 :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 받는 유산도시 경관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북한 : 유네스코 본부 지원과 다른 회원국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표제 권고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업 증진 현황을 사무국에 질의함.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한 유산 경관 파괴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과 사무국이 미리 제시한 추가교정본 채택

의제 번호	7.7 (42C/37)
의제 제목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 사무국 보고(ADG Ottone) : 표제 1980년 권고의 다섯 번째 국별 보고서 취합본 총회 보고(217차 집행이사회 검토 완료: 68개국 제출)

○ 회원국 논의 내용 : 17개국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권고가 예술가 지위 보호와 사회적 권위 신장을 위한 포괄적 이행을 보장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또한 문화다양성 관련 2005년 협

약과의 시너지 효과 강조, 유네스코-아쉬버그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강조함.

- 스웨덴 : 예술가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AI기술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전반적인 문화권리 증진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함.

- 핀란드 : 해당 권고의 이행 관련 보다 발전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4 (42C/18)
의제 제목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 사항 이행 종합 보고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 사무국 보고(ADG Ottone) : 217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검토 후 승인된 페루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 무형문화유산 센터(CRESPIAL)의 카테고리 2기관 지위 유지를 최종 승인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콜롬비아와 과테말라가 CRESPIAL의 지역내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증진과 인식 제고 등 분야 활동에 큰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카테고리 2기관 지위 유지 필요성을 역설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 결정문 채택 후 페루는 사의를 표하며 역내에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 국가간 협력을 위해 CRESPIAL이 카테고리 2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함

※ 전체 논의 종료 후, 북한이 발언을 신청하여 세계유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국가(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의 강제 노동 관련 유산의 등재 시도가 국가간 긴장 관계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차기 유산 등재 심사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함. 또한 해당 발언을 구두 보고에 포함할 것을 요청함.

## 6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위원회(CI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13일(월) / 10:00-13:00;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4일(화) / 10:00-13:00;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 요지

- 러시아는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발언 신청과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제정세에서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항변함.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간의 인식 및 알려진 사실관계와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며 오히려 러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거짓 정보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들어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백안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하여 가자지구 봉쇄로 인한 정보접근권의 원천 봉쇄와 언론인 무차별 공격 등 유네스코 CI 섹터에서 강조하는 사업 주안점 및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함. 또한 총회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 여하한 형태의 거듭된 민간인 피해와 무차별 파괴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42C/5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사무국의 원안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재가입 이후 CI 섹터를 비롯한 유네스코 사업 분야 전반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임. 총회 참가국들은 CI 섹터가 교육, 문화 등 다른 섹터에 비해 예산 총액은 적어도 유네스코가 창설 당시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정보와 생각의 자유로운 교환과 공유'를 위해 CI 섹터가 COVID-19와 기후변화 위기 등에서도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 적극 동의함. 아울러 2024-2025년 기간 중에는 추가된 정규 예산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사무소 단위에서 최대한 활용되고 통합예산체계(IBF)에 적시된 펀딩갭의 부족분을 조속히 메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사무국에 당부함.

### • 논의 의제 및 일정

#### 11월 13일(월)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4.6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 결과 이행에 관한 보고
- 7.1 공개교육자원(OER)에 관한 2019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8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11월 13일(월)

- 7.8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7.9 다중언어주의 촉진 및 사용에 관한 200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 4.23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관한 타슈켄트 선언
- 4.4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 4.18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개정 규약 채택

###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Mykola Movchan (우크라이나)
- 부의장 : H.E. Ms Ana Elena Pinto Lizano (코스타리카)

### • 상세 내용

- 인사말(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무총장보 Tawfik Jelassi) : CI 섹터가 추구하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가 유네스코 설립 정신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CI 섹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차후 2년 도 사업과 예산을 선보이게 됨.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는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편적 정보 접근권과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WSIS와의 협업 진전 상황 공유 및 시분야 모로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에 많은 국가들의 지지가 있었음에 사의를 표하며, CI 섹터 정부간위원회를 통한 사업 가시성 확보와 협업 증진에도 동참을 부탁 함. 이와 함께 미국 재가입을 통해 확보된 추가 예산을 활용하여 CI 섹터 사업들의 가시성을 보다 증진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플랫폼의 확대가 청년 세대와 토착민 언어의 소외 문제 극복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IPDC 정부간위원회 보고(네덜란드 부의장 Ms. Monique Van Daalen) : IPDC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미디어 개발에 있어서 성평등적 접근법 강조. 지난 해 신규 전략문서 채택으로 추진동력을 얻었으며, 82%의 IPDC 예산은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쓰이도록 기탁 (unearmarked)되어 전반적 유동성 확보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IFAP 정부간위원회 보고(자메이카 부의장 Mr. Cordel Green) : IFAP의 향후 10년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중기전략계획문서가 국별 회람을 거쳐 지난 6월 정부간위원회에서 공식 채택 됨. 지난 2년간 사업의 가시성을 담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보다 증액된(scaled-up)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함.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사무국 보고 : 향후 2년간의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표현의 자유와 언론인 안전 증진, 비판적 디지털 기술 사용, 포용적 지식사회와 언어다양성 및 기록유산 강조, AI 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인권 및 포용적 측면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섹터 전체 사업 예산은 41C/5 대비 약 50% 상승한 미화 92,051,000달러 수준이며, 정규예산이 28,234,000달러, 자발적 기여 등은 63,817,000달러임. 정규예산의 61%는 지역사무소에 할당하여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유도하고자 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36개국 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모두 사무국의 사업 및 예산안 원안을 지지하면서 회원국마다 진행해온 유네스코 CI 섹터 유관 활동들을 소개함.

- 러시아 : 모국어의 차이에 기인한 언론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SIDS 국가들을 배려한 사업 확대 필요성을 역설함. 아울러 폴란드,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제기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비난과 정치화 움직임을 경계하며, CI 섹터 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사실 확인과 판단을 주문함.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과 민간인 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통신망 파괴로 인한 정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와 언론인 피해가 거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네스코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희망함.

※ 팔레스타인 발언 직후 의장 제안으로 1분간 가자지구 공습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함

- 사무국 답변 : CI 섹터는 두 개의 정부간위원회(IFAP, IPDC)와 하나의 등재유산(MOW) 메커니즘을 통해 언론인 안전과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과 교환을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함. 신규 사업 및 예산안 통과를 바탕으로 여하한 형태로 자행되는 언론인에 대한 안전 문제와 언론인 대상 범죄 불처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 그리고 회원국의 일치단결한 행동계획 도출이 필요함.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 또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대응할 과제임. 지역사무소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SIDS는 물론 유네스코의 우선순위인 여성과 아프리카 비롯한 현장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AI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섹터와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AI 국제윤리기준과 실질적 행동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 외에

도 새로운 인터넷 정책 브리핑 도출을 통한 미디어 생존력 확보, 토착어 보존과 다언어주의 강화, CLT 섹터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6 (42C/20)
의제 제목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결과 이행에 관한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 General on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 SIS) outcomes

○ 사무국 보고 : W SIS는 2025년 20주년을 앞두고 W SIS+20 프로세스를 통해 포괄적이고 공평한 디지털 미래 구축, 인간 중심적 디지털 공공재 공급, 인간중심적 인공지능윤리와 인터넷 접근 보장,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정보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규제 등을 유네스코 참여로 논의 중이며, W SIS의 검토 과정에 현재까지 조화롭게 반영되고 있음. 유네스코의 C 분야 선도적 역할에 따른 기여 확대를 W SIS에 요청하고자 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등 23개 국가가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유네스코가 W SIS와 함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사회 인식제고를 통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꾸준히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환영함. 발언국 모두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전쟁 및 제재 상황으로 인해 W SIS의 검토 프로세스에 반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함.

- 캐나다 : 페이스북이 캐나다의 거대 인터넷 정보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과금을 빌미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데 우려를 표하며, 해당 행위가 온라인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함.

- 우크라이나 : 동 의제가 제시하고 있는 검토 프로세스상 기본 요건 충족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다수의 언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고 전 세계 관심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전면전 지속을 규탄함.

- 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W SIS 의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의제를 비롯하여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결의안 초안 3번(SDG 이행 촉진을 위한 ICT 활용)에서 ‘amplifying the use ~’를 ‘promoting a human-centred, rights-based and depoliticized use ~’로 수정하여 채택함.

의제 번호	7.1 (42C/31)
의제 제목	공개교육자원(OER)에 관한 2019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9 Recommendation concerning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 사무국 보고 : 모두에게 공평한 정보 제공과 교육자료의 보편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제 권고 채택 후 첫 번째 국별 정기 이행보고서 분석 통합본 보고(※ 한국 포함 78개국 제출 : 217차 집행이사회에서 검토 완료)
- 회원국 논의 내용 : 5개국(독일, 핀란드, 나이지리아, 이란, 필리핀)이 발언하였으며, 공개 라이선스가 부여된 교육 및 학습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과 교육 목적을 위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국의 OER 권고 이행 현황을 소개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7.8 (42C/38)
의제 제목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2015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5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 사무국 보고 : 표제 권고의 두 번째 국별 정기 이행보고서 분석 통합본 보고 (※ 한국 포함 46개국 제출 : 217차 집행이사회에서 검토 완료)
- 회원국 논의 내용 : 한국을 비롯한 20개국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국별 기록유산 관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낱말이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형태 기록물의 보존과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 한국 : 기록유산 분야 한국의 성과(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 설립,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사무국 유치 및 운영)와 과소등재국 대상 등재역량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진행해온 워크숍을 소개함. 또한 직지상 제정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 분야활동에 매진해온 기관 및 단체 발굴과 활동 진작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더 많은 국가들이 차기 보고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 러시아 : 국별 제출되는 기록유산들이 국가간 정치적 견해 차이나 정치화된 산물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사무국에 질의함.
- 사무국 답변(CI ADG) :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설립 등 기록유산 관련 회원국내 활동이 진작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함. 5월 신규 등재 이후 11월 30일 시한으로 차기 기록유산 등재신청을 받고 있어 참여를 독려함. 기록유산 등재, 보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역단위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로 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등재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린 바 있음. 러시아 질의 관련, 등재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내부 및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등재 기준에 따라 의도적 정치성을 띤 등재신청서를 엄격하게 심사·여과하고 있음을 설명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7.9 (42C/39)
의제 제목	다중언어주의 촉진 및 사용에 관한 2003년 권고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03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 사무국 보고 : 표제 권고의 다섯 번째 국별 정기 이행보고서 분석 통합본 보고 (※ 31개국 제출 : 217차 집행이사회에서 검토 완료)

○ 회원국 논의 내용 : 16개국이 발언을 신청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다국어 콘텐츠가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과 특히 토착어 10년 이니셔티브와 맥을 같이 하여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토착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러시아 : 발트3국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러시아어 사용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 권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소수언어 사용자를 배격하는 이중 잣대 적용을 규탄함.

- 일본 : 언어 다양성이 곧 인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상기하여 IFAP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 표현의 자유가 사이버공간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 사무국 답변(CI ADG) : 현재 진행 중인 토착어 10년 글로벌 행동계획과 IFAP의 6가지 우선순위 중 하나인 다중언어사용(multilingualism)을 염두에 두고 차기 보고서 취합을 위한 국별 협의 과정 중 기존 대비 개선상황과 우수사례 확보에 집중할 예정임.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의제 번호	4.23 (42C/64)
의제 제목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관한 타슈켄트 선언
	Tashkent Declaration on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 사무국 보고 : 세계 정보 접근의 날(IDUAL) 기념 2022년 9월 채택된 표제 선언은 SDG 16.10.2(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 보장) 강화를 위해 제안됨. 지속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보편적 정보 접근 추세를 확인하여 제한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 강화와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 증진을 위함임을 강조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15개국과 교황청(옵서버)이 발언을 신청했으며, 동 선언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국별 보편적 정보 접근권을 확대·강화하는 추세를 소개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러시아가 결정문 원안 모두 부분에 유엔 헌장 1조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잠시간 휴정을 통해 회원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일부 문구 수정 후 수정안 채택

- 추가된 부분 : Recalling the purpose of UNESCO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order to further universal respect for justice, for the rule of law and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affirmed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without distinction of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결정문 채택 후 우즈베키스탄은 채택 논의에 동참한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며 동 선언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의제 번호	4.4 (42C/18)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 및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사무국 보고 : 모로코 제안으로 모로코 모함마드VI 폴리텍대학 내 AI 국제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2023년 1월 현지 타당성 조사 및 217차 집행이사회 사전 검토 완료)

○ 회원국 논의 내용 : 토론 없이 결정문 채택

○ 결정문 채택 결과 :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 결정문 채택 후 모로코는 사의를 표하며 신규 카테고리 2기관이 아프리카 AI 분야 역량강화와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함

의제 번호	4.18 (42C/58, 42C/39, 42C/LEG/14)
의제 제목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개정 규약 채택
	Adoption of the revised Statutes of 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IFAP)

○ 사무국 보고 : 이번 IFAP 정관 개정의 주요 골자는 (1) 부의장국을 기존 4개국에서 6개국(전체 지역구)으로 확대, (2) IFAP 국가위원회 설치 및 활동 명시이며, 개정안이 IFAP 총회(2023. 6.) 및 제217차 집행이사회 법률위원회(2023.10.)의 승인을 받았음을 설명함.

○ 회원국 논의 내용 : 9개국과 옵서버(IFLA)가 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자메이카, 말라위, 콩고민주 공화국, 러시아, 필리핀, 중국, 스웨덴, 알제리, 이란 등이 발언을 통해 IFAP의 활동 및 정관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힘.

- 스웨덴 : 정관 6.2항 IFAP 정부간이사회에 지역적 배분 뿐만 아니라 교대(rotation) 원칙 추가를 제안함.

- 러시아 : 정관은 이미 집행이사회 법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함.

- 사무국 답변(CI ADG) : 스웨덴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IFAP 정부간이사회 선거에서 경합이 발생한 적이 없었음을 설명함.

○ 결정문 채택 결과 : 러시아가 전차(217차) 집행이사회 법률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 문구 수정안은 불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우루과이가 동의하여 수정안 없이 원안 채택

## 7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분과 위원회(APX Commission)

###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8일(수) /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9일(목) / 10:00-13:00;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0일(금) / 15: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 요지

- 소도서개도국(SIDS) 지원과 협력에 대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인력관리전략 등 논의 시에 다수 회원국이 강조하였으며, 지역사무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사무국 내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도 환영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일부 회원국 간의 참여한 대립으로 여러 번 지연됨. 다수 국가가 공통으로 언론인, 학교, 유산 등 유네스코 분야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적극적인 우려를 표한 한편,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동 이슈 관련 유네스코 논의 장 내의 정치화와 양극화, 이중 잣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
-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결정문 채택 후 다수의 회원국이 하마스에 대해 비난했으며, 아랍 중심으로 제출한 DR.2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투표 시에 기권하거나, 그럼에도 취지에 동의해서 찬성한 회원국이 다수 있었으며, 미국이 제출한 DR.3에 반대했던 다수의 아랍 회원국이 찬성하면서 DR.2가 채택됨.
- 이번 APX에서는 호명투표로 결정한 의제가 2개가 있었으며, 의제 4.24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는 토론 여부부터 3차례나 호명투표를 거쳐 결정했으며, 총회 의사규정에 대한 해석 등 회원국들이 규정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었음.
- 반면 19개 의제 중 무토의로 결정문 원안 채택한 의제도 10개나 되었으며, 주로 집행이사회 혹은 준비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집행이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함.

###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8일(수)

- 1.2 유네스코헌장 관련 회원국 교신 사무총장 보고(분담금 미납 회원국 투표권 부여여부 결정)
- 3.1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42C/5) 검토 및 채택
- 9.4 미국의 2023년 분담금 사용을 위한 특별계좌 재정 규정
- 5.1 활동 수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 5.3 사무총장 혐의 유네스코 조사 절차
- 4.1 2024-2025년 회원국 제안 기념행사

**11월 9일(목)**

- 4.20 소년케어(語)의 날
- 9.3 재정 규정 개정
- 11.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및 본부위원회 보고
- 10.5 2023-2027년 인적자원 관리 전략
- 10.1 직원 규정과 지침
- 10.2 직원 급여, 수당 및 복리후생
- 10.3 유엔 공동 직원 연금
- 10.4 의료 혜택 기금(MBF) 현황 사무총장 보고
- 9.1 유네스코 계정에 대한 외부감사 재정 보고
- 8.1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기여 관련 4년 주기 보고
- 4.17 우크라이나에서의 유네스코 활동

**11월 10일(금)**

- 4.24 가자지구/팔레스타인 상황이 유네스코 임무에 미치는 영향
- 1.2 유네스코헌장 관련 회원국 교신 사무총장 보고(분담금 미납 회원국 투표권 부여여부 결정)
- 9.2 회원국 분담금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Vishal V Sharma (인도)
- 부의장 : H.E. Ms. Paula Alves de Souza (브라질)

• 상세 내용

의제 번호	1.2 (42C/10)
의제 제목	유네스코헌장 관련 회원국 교신 사무총장 보고(분담금 미납 회원국 투표권 부여여부 결정)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invok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V.C, paragraph 8(c), Article V.A, paragraph 1(b), and Article V.C, paragraph 14(b), of the Constitution

○ 사무국 보고

- 분담금 미납 29개 회원국의 투표권 상실 관련, 워킹그룹의 보고를 바탕으로 기한 내 사무국과 논의한 4개국(리비아, 이란, 소말리아, 예멘)에 투표권 부여하고, 플레너리 세션 내 구두 보고 예정
- 기한 이후 사무국과 논의한 3개국(에콰도르, 기니비사우, 베네수엘라)은 투표권을 상실하여야 하나, 규정 112에 의거 투표권 지닌 참여 회원국 2/3의 동의 시 투표권 상실 보류 가능하여 전체회의에 넘겨 논의하기로 함
- ※ 분담금 워킹그룹 구성
  - 그룹 1(유럽, 북미): 미국 - 그룹 2(동유럽): 폴란드 - 그룹 3(남미): 엘살바도르
  - 그룹 4(아시아태평양): 일본 - 그룹 5(a)(아프리카): 가나 - 그룹 5(b)(아랍): 팔레스타인

○ 회원국 논의

- 캐나다가 규정 적용의 보류 결정이 통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되기에 동 논의 내용을 금번 회의 기록에 남길 것을 제안

○ 결정문 채택

- para 1, 3 : 원안대로 채택
- para 2 : 전체회의 검토 후 논의 결과에 따라 채택하기로 함

(11월 10일 회의시 논의 내용)

- 의장이 결정문 채택을 위해 최종안을 소개하면서, para 2에 대해서는 실무작업반(의장 팔레스타인 대사)에게 논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함
- para 1. 리비아, 이란, 소말리아, 예멘 : 예외 인정 투표권 부여
- para 2. 에콰도르, 기니비사우, 베네수엘라 : 예외 상황(beyond control) 인정, 투표권 부여

- 위 최종안에 대해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 승인 요청하기로 함
- 이어 의장은 실무작업반에 임기가 종료되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미국(그룹 I), 폴란드(그룹 III), 일본(그룹 IV)가 선출되어 엘살바도르, 팔레스타인과 함께 활동한다고 소개

의제 번호	3.1 (42C/5 Rev.)
의제 제목	2024-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24-2025

- 별도 보고 및 토의 없음
- 결정문 채택
  - 00100, 07000, 09100, 09200, 09300, 09400: 원안대로 채택
  - 쿡아일랜드 : 09500 관련 태평양지역 군소도서 국가(SIDS)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신규 지역사무소 설립 제안
  - 문단 9 : (추가) ... [in particular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regional multisectoral office location in the Pacific;](#)
  - 문단 9 bis : (전체 추가) [Requests the Secretariat to continue mutually benefici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Field Network thematic and regional coordination responsibilities outlined in Annex I of document 217 EX.4.III, until such time as they are resolved,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ies, sustainability and equitable regional balances, as well the efficiency, budgetary sustainability and optimal field presence;](#)

※ 동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문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본부의 APX 위원회 결과 요약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고 원안대로 채택한 것으로 표기됨.

의제 번호	9.4 (42C/65)
의제 제목	미국의 2023년 분담금 사용을 위한 특별계좌 재정 규정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use of the 2023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무토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5.1 (42C/25)
의제 제목	활동 수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Definition of regions with a view to the execution by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activities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5.3 (42C/27)
의제 제목	사무총장 혐의 유네스코 조사 절차
	UNESCO Procedure of investigation of allegations against the Director-General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4.1 (42C/15)
의제 제목	2024-2025 회원국 제안 기념해
	Proposals by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celebration of anniversaries with which UNESCO could be associated in 2024-2025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4.20 (42C/61)
의제 제목	소닌케어(語)의 날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Day of the Soninke Language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9.3 (42C/48 Corr.)
의제 제목	재정 규정 개정
	Revision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 별도 보고 및 토의 없음

○ 결정문 채택

- para 1, 2 : 원안대로 채택

- para 3 : (캐나다) 결정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사의 표명 문단 추가 제안

- (추가)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a management review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is planned to be carried out in 2026 (two years after the Regulations are effective) to ensure the proposed changes are achieving the intended effects;**

- 문단 4 : (수정 / 문단번호 3 → 4) **Calls-upon Draws the attention of Member States to pay attention** to the need for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Organization in its financial governance, including specifically the funding of long-term liabilities and capital expenditure requirements.

의제 번호	11.1 (42C/50)
의제 제목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및 본부위원회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in cooperation with the Headquarters Committee, on managing the UNESCO complex

○ 별도 보고 및 토의 없음

의제 번호	10.5 (42C/49 Add.)
의제 제목	2023-2027 인적자원 관리 전략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 회원국 논의 내용

- 핀란드 : 사무국 인력관리에 성평등 전략 적용을 환영하며, 더욱 지역사무소 중심의 기관 운영 통한 지역적 균형 갖추게 되기를 바램. 기관 차원의 유연성과 순발력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의 실행계획이 필수적이며,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대상 설문 실시 등 다양한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함

- 캐나다 : 인력 활용상의 성평등은 고위급에서도 달성되어야 하며, 향후 성평등에서 더 나아가 장애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나가기 기대함. 지역사무소 중심의 접근과 기관

의 유연성, 순발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력관리에 예년 대비 더 많은 예산 배정된 바, 고용 뿐 아니라 직원 복지 등 인력 관리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램

- 오만 : 지역사무소 강화를 통해 향후 권력 분산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성평등, 지역균형, 직원 복지를 아우른 동 전략의 이행 결과를 기대함

○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10.1 (42C/44 Add.)
의제 제목	직원 규정과 지침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10.2 (42C/45 Add.)
의제 제목	직원 급여, 수당 및 복리후생
	Staff salaries, allowances and benefits

○ 회원국 논의 내용

- 캐나다 : 직원 급여, 수당 및 혜택 관련 새로운 방침의 완전한 적용 시점 질의
- 사무국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2023년 현재 부분적 적용 중이며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 및 완전 적용 예정

○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10.3 (42C/46)
의제 제목	유엔 공동 직원 연금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10.4 (42C/47 Add.)
의제 제목	의료혜택기금(MBF) 현황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the state of the Medical Benefits Fund (MBF)

○ 별도 보고 및 토의 없음

○ 결정문 채택 결과

- para 1 : 원안대로 채택
- para 2 : (프랑스 수정 제안) Takes note that ... in Paris, by continuing to study various options proposed by the host Government authorities, the resolution of which is in the hands of the host Government authorities, ... greatly appreciated;
- para 3 : 의료혜택기금 관리 이사국(2024-2025)에 가나, 이집트 선정
- para 4, 5, 6 :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9.1 (42C/42 Add.)
의제 제목	유네스코 계정에 대한 외부감사 재정 보고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accounts of UNESCO for the financial period ended 31 December 2022, and report by the External Auditor

○ 무토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8.1 (42C/41, 42C/INF.12)
의제 제목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기여 관련 4년 주기 보고
	Quadrennial report on the contribution made to UNESCO's activities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회원국 논의 내용

- 핀란드 : 비정부기구는 성평등, 아프리카, 청년, SIDS 등 유네스코의 우선 집중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 사무국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옹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스위스 : 비정부기구 활동이 유네스코 가치 확산 및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비정부기구 간 시너지가 지역 규모 등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스웨덴 : 비정부기구 활동의 지역균형 증진을 환영하고 독려함

○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4.17 (42C/57, 42C/COM.APX/DR.1 Rev.)
의제 제목	우크라이나에서 유네스코 활동
	UNESCO's action in Ukraine

○ 회원국 논의 내용

- 러시아 : 유네스코의 장 내에서 서부 국가의 집단적 압박을 규탄하며, 동 의제의 갑작스러운 추가와 같이 유네스코가 정해진 절차를 적절히 따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치적이며 일방적인 결정은 공정함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컨센서스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의제 채택 여부에 대해 투표를 요청함
- 중국,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베네수엘라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동 건에 관한 유네스코 내의 양극화와 정치화는 경계 필요함
- 스웨덴, 독일, 미국, 폴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체코,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몰타, 라트비아 등 :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고 그로 인한 민간인, 문화유산, 학교의 막대한 피해에 큰 우려를 표함
- 팔레스타인 : 무고한 민간인과 기관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집단적 행동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사안에서 아랍 국가들에 의해 나타났다면 정치화라 지탄받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에 회의를 표함. 같은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 제3의 국가들과 유네스코는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강조함

○ 결정문 채택에 대한 호명투표 실시 결과

- 참여 : 총 185개국
- 찬성 : 62개국
- 반대 : 8개국(벨라루스, 중국, 쿠바, 러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시리아, 북한)
- 기권 : 44개국

○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 번호	4.24 (42C/COM.APX/DR.2, 42C/COM.APX/DR.3)
의제 제목	가자지구/팔레스타인 상황이 유네스코 임무에 미치는 영향
	Impact and consequenc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Gaza Strip/ Palestine in all aspects of UNESCO's mandate: draft resolution

○ 이 의제에 대한 DR이 2개 상정되었으며, 아랍 및 그 외 20-25개국 지지하는 DR.2와 이에 대한 미국의 수정안인 DR.3을 위원회에서 검토

○ 절차에 대한 회원국 논의

- 예멘이 DR을 consensus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고, 쿠웨이트는 논의 없이(closure of debate) 채택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요청
- 사무국 법률자문관은 총회 의사규정(Rules of Procedure of the General Conference) 74 조 'closure of debate'에 따라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논의 없음을 선언할 수 있으며, 84조 'vote'에 따라 총회의 결정 방법은 투표이며, 다른 규정이 없다면 거수로 결정하고, consensus가 있을 경우 무투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
- 미국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규정 90조 'voting on amendments'의 1항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투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법률자문관이 closure of debate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후에 DR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함
- 이에 미국은 규정 90조 4항을 언급하면서 제안에 대해 단순히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revise)할 경우 수정안(ammendment)으로 간주한다고 확인하고 논의 종료에 대해 반대함
-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은 논의 종료 관련 투표를 요청하자, 법률자문관은 consensus가 없으므로 거수로 투표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규정 81조 'simple majority'에 따라 과반으로 결정하며, 83조 'meaning of the expression "Members present and voting"'에 따라 투표수는 찬성, 반대를 표시한 경우만 합산한다고 안내 (기권은 유효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논의 종료에 대해 투표

- 의장은 논의 종료에 동의할 경우 거수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경우와 기권을 차례로 거수 요청한 결과 찬성 65, 반대 32, 기권 20으로 유효 투표수 97의 과반이 되어 논의 종료하기로 결정됨

### ○ 결정문 채택 절차 논의

- 팔레스타인은 DR2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요청하였으나 의장은 규정 90조 1항(수정안 먼저 투표)을 언급하였고, 이어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이 DR.2를 거수로 결정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법률자문관은 두 개의 DR 중 수정안인 DR.3를 먼저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
- 팔레스타인은 규정 88조 ‘order of voting on proposals’를 언급하면서 두 개 이상의 proposal이 있을 경우 제출한 순서대로 투표해야 한다면서 DR.3는 수정안(amendment)이 아니라 new proposal이라고 주장
- 미국은 다시 90조 4항을 언급하면서 DR.3은 proposal(DR.2)에 추가하고 revision하였기에 수정안(amendment)이라고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DR.3은 rewriting하고 내용에 변화(substantial change)가 있다고 주장
- 쿠웨이트는 규정 76조 ‘general provisions’ 1, 2, 3항 관련, DR과 수정안은 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면서 DR.3은 전날 저녁 6시 10분 전에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의장은 5분간 휴정 선언 후 회의 재개
- 팔레스타인은 DR.2는 아랍국가들과 그 외 회원국 총 50개국 이상이 제출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DR.3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며, roll-call 투표를 제안하고 미국은 팔레스타인 제안 지지함

### ○ DR.3 결정문 채택 투표

- 의장은 DR.3 전체에 대한 지지 여부를 roll-call 투표를 제시하였고, 중국은 DR.3 채택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DR.2가 채택되는지 질의
- 법률자문관은 규정 90조 1항에 따라 수정안 투표를 먼저 하며, 전체(as a whole)를 투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의 DR이 수정안임을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요청하고 미국이 지지한 roll-call은 85조 2항에 2개국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가능함을 설명함
- 요르단은 법률자문관의 설명한대로 투표할 것을 요청하고, 미국은 쿠웨이트의 요청처럼 화면에 내용을 보여주면 명확할 것이라고 발언
- 사무국은 미국의 수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안내하고,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수정안에 반대할 경우 ‘No’라고 대답해야 함을 강조함
- 이에 의장은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며 abstention 등 모두 가능함을 안내
- 사무국은 미국의 수정안 전체(amendment as a whole)에 찬성(in favor of)하는지 질문하고 이에 회원국들이 roll-call로 답변함
-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결과, 찬성 35, 반대 59, 기권 39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48표가 필요해서 이 DR은 채택되지 않음

○ DR.2 결정문 채택 투표

- 카타르는 DR.2 전체를 한번에 투표할 것을 제안하고, 인도네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은 support 가 아니라 co-sponsor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남아공과 중국도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리비아와 요르단은 카타르의 제안을 지지함
- 의장은 DR.2 전체에 대해 찬반 여부를 투표한다고 안내한 후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결과, 찬성 96, 반대 8, 기권 33으로 유효 투표수 104로 통과되려면 53이 필요하여 이 결정문은 채택되었다고 선포하자 회원국들이 박수로 환영함

○ 이후 회원국 발언

- 독일 : 현재 가자지구 분쟁에서 인도주의 법에 따라 민간인 보호 강조하고, 결정문에 하마스가 반영이 안 되어 유감이며, 한 쪽 입장만 반영됨.
- 팔레스타인 : 많은 회원국의 결정문을 지지해서 감사를 표하고, 병원 폭발 등의 가자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팔레스타인은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중단을 요청함. 이어 가자 난민촌에서 태어난 청년이 2008, 2012, 2014 세 번의 전쟁을 경험하였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가족을 잃었고 병원 폭파 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가자의 재건과 여성, 남성, 아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건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원국들이 기립박수로 지지함.
- 미국 : 일방적인 결정문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마스와 인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와 민간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함.
- 모로코 : 찬성국에 감사하면서 분열하려는 게 아니며, 유네스코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며, 가자의 희생자들을 위한 아랍그룹의 메시지를 이해해준데 감사함.
- 영국 : 인도주의 법에 따라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을 지지함. 투표에는 기권하였으며, 평화 건설, 유네스코 사명을 지지함.
- 싱가포르 : 긴급상황에 대한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지하며, 하마스에 유감을 표하고, 유네스코의 결정적인 역할 강조함.
- 사우디 : 결정문 지지에 감사하며, 비정치적인 원칙을 담고 있으며, 민간인 공격과 병원 폭파를 비난하면서 국제법과 규약 위반이라고 언급함.
- 과테말라 : 이 의제는 다른 유엔 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며, 대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희생자에 조의를 표하며 혐오발언을 경계하고,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함.
- 러시아 : 아랍과 지지국에 감사하며, 비극과 분쟁에 연합해야 하며 평화협정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지지하고, 민간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춰야 하며,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두에게

- 조의를 표함. 국제법 위반을 강하게 비난하며,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함.
- 이란 : 인도주의 법 위반 강조하며, co-sponsor를 추가 요청함.
- 아일랜드 : 가자의 인도주의 상황을 언급하며 DR을 지지함. 인질 석방을 요청하고, 언론인 안전, 민간인 지원 등 유네스코 활동을 요청함.
- 이탈리아 : 테러리스트를 비난하며, 결정문에 하마스와 인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아이슬란드 : 하마스를 비난하며, 군사적 방법은 해결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함.
- 일본 : 희생자에 조의를 표하며 하마스를 비난하고,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지하며, 이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음.
- 캐나다 : 가자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 문화유산 보호, 국제 인도주의법을 강조하고, DR을 지지하지 않음. 하마스를 비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함.
- 중국 : 가자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를 깊이 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고, 인도주의 법 위반, 문화유산과 병원 파괴 등을 비난함.
- 폴란드 : 민간인 공격 좌시할 수 없으며 무조건 인질을 석방해야 함
- 포르투갈, 카타르, 리비아, 오만, 레바논, 뉴질랜드는 DR의 취지를 지지하며, 튀르키예, 파라과이, 베트남, 예멘, 쿠바, 코스타리카, 덴마크, 이집트, 쿠웨이트, 호주, 헝가리 등은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함.
- 옵서버인 이스라엘은 결정문을 거부하며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테러리스트와 하마스를 비난하며, 240명의 이스라엘인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을 언급함.

의제 번호	9.2 (42C/43 Add.)
의제 제목	회원국 분담금
	Member States' contributions

○ 무투의 및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IV.

# 제10차 국가위원회 총회 및 파트너스 포럼 결과 보고

1. 제10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2. 42차 총회 계기 파트너스 포럼



---

## IV

# 제10차 국가위원회 총회 및 파트너스 포럼 결과 보고

---

### 1 제10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 회의 일시/장소: 11월 6일(월) / 09:00-17: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참석자: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 국가위원회 관계자 200여 명

#### • 일정

- 9:00-9:30 등록 및 개회

- 9:30-9:45 개회사(유네스코 부사무총장 Qu Xing)

- 9:45-10:00 의장단 선출

- 10:00-11:15 21세기 유네스코 최신 활동 논의

-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 교육을 통한 문화와 예술의 전환적 힘 해방
- 신기술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규범 창출

- 11:15-13:00 2026-2029 사업계획 및 예산안(43C/5)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 역할 논의

- 14:00-15:00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협력 활동 우수사례 논의

- 15:00-17:00 국가위원회 주도 활동 및 혁신 사례 공유

- 17:00 폐회

#### • 요지

- 유네스코 주요 분야 활동에 대한 사무국 보고

- 회원국 주요 논의 사항 및 활동 사례 공유

## • 상세 논의 내용

### 1. 유네스코 주요 분야 활동에 대한 사무국 보고

- 의장단 선출 : 유네스코코카아일랜드위원회 사무총장 Ms Danielle Tungane Cochrane가 의장, 유네스코오만위원회 사무총장 Ms. Amna Al Balushi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 교육 사무총장보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 개정을 통해 더욱 시의적절하게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권고 수립 노력 기울이고 있으며, 120여개 회원국이 초안 수정에 참여해, 금번 총회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음을 보고함. 개정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영역은 성평등, 변혁적 교육, 지속가능발전 등이며, 국가위원회가 동 개정안의 완성과 채택 과정에서 사무국과 회원국 간 가교 역할은 한 것에 사의를 표함.
-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는 AI 윤리 권고 채택에 따른 이행을 위해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준비도평가방법(readiness assessment methodology)과 윤리영향평가(ethical impact assessment) 등 혁신적 도구 활용을 강조함. 나아가, AI 윤리에 대한 관심이 일부 국가로 제한된 것을 설명하고, 더 많은 국가의 관심과 참여 독려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함.
- 문화 사무총장보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로 드래프트 프레임워크”가 여러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초 아부다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컨퍼런스의 채택을 앞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포함한 비형식, 무형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문화 사무총장보는 동 건이 문화와 교육 분야 내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요하는 점을 도전과제로 꼽으며, 동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함.
- 전략기획과장은 유네스코의 다음 4개년(2026-2029) 계획에 국가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까지 남은 2년 간 지난 성과와 부진을 AI 활용한 데이터 스캐닝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다방면에서 국가위원회와 소통하고 활동할 것임을 강조함.

### 2. 회원국 주요 논의 사항 및 활동 사례 공유

- 자메이카, 우간다, 큐라소 등 국가위원회는 더욱 효과적인 의견 교환과 수렴을 위하여 여러 지역 레벨에서 상호 간 / 사무국과의 논의(regional, sub-regional, inter-regional consultation)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사무국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추진 방안 모색을 약속함.
-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사이프러스 등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 분야 의사결정과정의 청년 참여

와 청년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함. 특히 뉴질랜드는 청년 대표가 직접 발언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 말라위 등 국가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의 국제협력, 교육분야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글로벌 아프리카 및 성평등 우선전략 달성을 위한 국가위원회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 비형식교육을 지원하는 브릿지 프로그램 △과 소등재국의 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기록유산 역량강화워크숍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등 활동 사례를 소개함.

## 2 제42차 총회 계기 파트너스 포럼

- **회의 일시/장소:** 11월 8일(수) - 17일(금) / 유네스코본부
- **참석대상:** 유네스코 회원국,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십 NGO, 기타 유네스코 총회의 인증을 받은 재단 및 조직, 관계자 등

### • 일정

#### 11월 8일(수)

- 8:45-9:45 위기에 대한 유네스코의 대응
- 10:00-10:45 교육 개혁 정상회의의 성별 관련 공약 추적: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 12:00-13:00 책임 부담: 디지털 전환 속에서 어린이의 개인 정보 보호
- 14:00-14:45 ASPnet 70주년: 교육 변혁을 통한 평화를 위한 행동

#### 11월 9일(목)

- 09:00-09:45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과학 10년: 과학과 사회를 변화시키다
- 12:00-13:00 회원국의 주요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역량 구축
- 13:00-14:00 국가위원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 11월 10일(금)

- 08:30-09:45 국제적 도구로부터 AI에 대한 강화된 준비까지
- 10:15-11:00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Women@dior에서 젊은 여성에게 권한 부여
- 11:00-11:45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종차별과 차별에 맞서다
- 12:00-12:45 유네스코의 예술작품: 걸작과 국제적 파트너십
- 13:00-13:45 기후 교육 및 행동을 위한 청소년과의 파트너십 육성
- 14:00-14:45 회복력 있는 미래 형성: 기후 및 유산 파트너십
- 15:00-15:45 지속가능성 탐구: 자연세계를 위한 유네스코와 탐험가 클럽의 협력적 비전
- 16:00-17:00 브라질의 민간부문과의 혁신적 파트너십
- 17:00-18:30 영화산업의 성별: 애니메이션 분야의 여성을 통해 영화 부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지원
- 18:30-19:30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레바논 교육 개혁 강화

### 11월 13일(월)

- 09:00-10:00 UNESCO-EU 파트너십은 어떻게 인권 기반 디지털 변혁을 촉진하는가?
- 13:15-14:15 UNESCO와 EU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SDGs를 가속화하는가?
- 18:00-19:00 유네스코-EU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목소리의 참여, 역량 강화 및 연결

### 11월 14일(화)

- 08:30-09:45 변화하는 기후, 변화하는 빙하권: 국제 빙하 보존의 해를 향하여 - 2025
- 11:00-11:50 비상사태를 포함한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 강화
- 12:00-13:00 행동하는 연합: 국제 여아의 날
- 13:00-13:45 여성 과학자들이 직면한 과제 해결
- 14:00-14:45 유네스코 심사위원 이니셔티브 10주년: 얻은 교훈과 앞으로의 방향
- 14:45-15:30 유네스코와 알울라 왕립위원회, 알울라 문화에 대한 혁신적 통합 접근 방식 시작
- 18:00-18:45 청소년 해커톤 시상식

### 11월 15일(수)

- 12:00-12:50 목표 달성: 2030년 이후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명시적 문화 목표 실현
- 13:00-13:50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을 위한 물 접근성
- 14:00-14:4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과학의 잠금 해제: 유네스코의 해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역할
- 18:00-18:45 유네스코 가입 관련 홍보

### 11월 16일(목)

- 09:00-09:45 유네스코 도시 플랫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 13:00-13:45 유네스코 해양 세계 유산: 변화하는 바다 속 희망의 등대
- 14:00-16:00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유네스코 협회 및 클럽
- 18:00-18:45 디지털 시대의 토착어

11월 17일(금)

- 09:00-09:45 문화와 디지털 기술: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
- 13:00-13:45 문화 자금 조달에 대한 세계적 반성과 대화 강화를 향하여
- 14:00-14:45 살아있는 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학습: 학습 및 웰빙 개선을 위한 회복력 지원 및 응집력 강화

- **요지**: 유네스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 세계 파트너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활동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있음. 이번 파트너스 포럼은 영향력 전략의 일환으로 다중 이해 관계자 동맹, 파트너십 및 연합을 구축하여 유네스코 관련 활동의 위임을 지원하고자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가진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집단적 지혜와 전문성을 활용하고, 결과를 선보이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V.

## 주요 선거 결과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

# V

## 주요 선거 결과

---

###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 **일시:** 11월 15일(수), 지명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

• **선거 결과**

- 그룹 I(서유럽·북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 그룹 II(동유럽): 세르비아, 알바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한민국, 호주
- 그룹 V(a)(아프리카):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가봉,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 그룹 V(b)(중동):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 **일시:** 11월 16일(목)

• **2023년 한국 선출 위원회**

-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국제조정이사회: 임기 2023-2027년
-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임기 2023-2027년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벨기에, 프랑스, 미국

- 그룹 II(동유럽): 해당없음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쿡아일랜드, 일본, 필리핀
- 그룹 V(a)(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기니, 케냐
- 그룹 V(b)(중동):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 **본부위원회(Headquarters Committe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벨기에, 프랑스
- 그룹 II(동유럽): 크로아티아, 몰도바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칠레, 세인트루시아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중국
- 그룹 V(a)(아프리카): 기니, 토고
- 그룹 V(b)(중동): 팔레스타인

•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해당없음
- 그룹 II(동유럽): 헝가리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도미니카공화국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중국
- 그룹 V(a)(아프리카): 해당없음
- 그룹 V(b)(중동): 모로코

• **모두를 위한 정보 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해당없음
- 그룹 II(동유럽):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중국, 몽골, 파키스탄,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콩고,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 그룹 V(b)(중동): 알제리

•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국제조정이사회 신규 이사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 그룹 II(동유럽):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루마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자메이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쿡아일랜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대한민국
- 그룹 V(a)(아프리카):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잠비아
- 그룹 V(b)(중동): 모로코

•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 그룹 II(동유럽):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말레이시아, 중국, 파키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케냐, 수단,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 그룹 V(b)(중동):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위원회(ICPRCP)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 그룹 II(동유럽): 체코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칠레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인도, 일본
- 그룹 V(a)(아프리카): 가나, 잠비아
- 그룹 V(b)(중동): 이집트, 리비아

•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IPDC)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 그룹 II(동유럽):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기니, 마다가스카르
- 그룹 V(b)(중동): 이집트, 예멘

•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룩셈부르크, 스페인
- 그룹 II(동유럽):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이란, 몽골,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가나, 케냐, 말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 그룹 V(b)(중동): 리비아, 오만

•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 그룹 II(동유럽): 불가리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칠레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방글라데시, 중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일본
- 그룹 V(a)(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부아르,
- 그룹 V(b)(중동): 모로코, 오만, 레바논, 튀니지

• **체육교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CIGEPS)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핀란드, 영국
- 그룹 II(동유럽):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자메이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투르크메니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 그룹 V(b)(중동): 해당없음

• **교육 내 차별협약 당사국 분쟁 조정 위원회(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responsible for seeking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Mr Kouassi Théodore René François Komoï(코트디부아르)

• **Nubia**

- 그룹 I(서유럽·북미): 해당 없음
- 그룹 II(동유럽): 체코, 폴란드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해당 없음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해당 없음
- 그룹 V(a)(아프리카): 해당 없음
- 그룹 V(b)(중동): 이집트

### 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 **일시:** 11월 22일(수) (※ 제24차 세계유산총회 중 실시)
- **결과:** 아래와 같이 4년 임기(2023-2027년) 위원국 선출

#### 가. 2023-2027년 임기

- 그룹 I(서유럽·북미): 튀르키예
- 그룹 II(동유럽): 우크라이나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자메이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베트남
- 그룹 V(a)(아프리카): 케냐, 세네갈
- 그룹 V(b)(중동): 레바논

#### 나. 2021-2025년 임기

- 그룹 I(서유럽·북미):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 그룹 II(동유럽): 불가리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인도, 일본
- 그룹 V(a)(아프리카): 르완다, 잠비아
- 그룹 V(b)(중동): 카타르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VI.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1.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협력 세븐틴 세션 개최 결과



---

# VI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

## 1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협력 세븐틴 세션 개최 결과

### 1. 추진 배경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간 양자협약(2022. 8. 1.)에 따라, 양 기관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아이돌 그룹 '세븐틴'과 함께하는 "고잉투게더 캠페인"을 추진해옴. 이를 계기로, 변화의 주역인 청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을 확대하여,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을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간 삼자협약 체결(2023. 10. 1.)

### 2. 주요 협력 내용

-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2023. 11. 14.-15.) 행사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븐틴 세션<sup>1)</sup> 개최
  - 일시/장소 : 2023년 11월 14일 저녁 7시 / Room I
  - 주최 :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 주요내용 : 세븐틴 공연, 메시지 전파, 고잉투게더 캠페인 결과 공유 및 영상 상영
    - ※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축사

### 3. 기타 협력

- 유네스코 청년포럼 홍보를 위한 세븐틴 협력: 청년포럼 공식 티저 영상 제작, SNS 홍보 이벤트 개최 등
- 청년포럼 개최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에 개최금 10만 달러 공여(공여 주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청년들의 연대와 주체성"을 강조한 고잉투게더 캠페인 활동을 기반으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세븐틴은 유네스코 청년포럼에 협력하여, "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등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전파하고자 함

#### 4. 효과 및 의의

- 성공적인 삼자 협력을 기반으로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존재감 및 위상 증진
-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 및 SDG4 이행 분야에서 한국 주도성 강화
-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콘텐츠 영향력 확대 및 유네스코와 민간분야 파트너십의 선례 제시

#### [참고 1]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요

- **회의 일시:** 11월 14일(월)-15(화)
- **회의 장소:** 유네스코 본부 일원(세븐틴 세션은 Room I에서 개최)

#### • 일정

##### 11월 14일(월)

- 10:00-12:30 개회식(Room I)
- 15:00-18:00 장관들과의 대화(Room X)
- 18:00-18:45 워킹세션(Room XII)
- 19:00-21:00 세븐틴 특별세션(Room I)
- 21:00-00:30 Ad Hoc 회의(Room X): Drafting Committee 활동

##### 11월 15일(화)

- 10:00-13:00 권고 채택(Adoption Session) (Room X)
- 13:00-13:30 폐회식(Room X)

#### • 요지

-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전 세계 청년대표들이 3개월 온라인, 3일간의 현장 활동(13일 사전 모임 포함)을 통해 청년 중심의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Global Recommendation을 작성하고 채택함

### 〈청년 포럼 행동촉구(Call for Action) 요약〉

우리는 유네스코 제13차 청년 포럼의 참가자로서 전 세계의 결정권자들에게 우리의 지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산불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사건이 도시와 취약한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후 공약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경제 구조의 화석 연료 소비와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
2.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것.
3. 녹색 전환을 위해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교통, 녹색 일자리, 공평한 식수 공급 시스템 및 기후 친화적 농업을 대대적으로 투자 및 지원할 것.
4. 기후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고, 민주적 기관과 외교적 접근을 통해 기후 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

우리는 기후 변화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포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통해 여성, 장애인, 원주민 및 분쟁 지역의 청년들을 포함한 소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논의가 아닌 행동의 시기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대담한 기후 행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동하십시오.

### 〈청년 포럼 채택 글로벌 권고(Global Recommendation) 요약〉

이 문서는 유네스코 제13차 청년 포럼 참가자들이 기후 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 1. 청년 참여와 세대 간 협력

- 청년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 청년, 특히 소외 계층의 청년들이 최소 30% 비율로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세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청년과 이해 관계자 간 지식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공동 설계합니다.
- 기술적·재정적 지원: 청년들의 기후 정책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2. 청년 기후 행동 강화

- 청년 네트워크 지원: 멘토링, 펀딩 및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주도의 기후 행동을 지원합니다.
- 청년 기후 캠프 개최: 청년 기후 네트워크 간의 학습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제적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 3. 청년 건강 및 복지

- 청년 건강 연구 지원: 기후 변화가 정신 건강과 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혁신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 기후 위기 대응 홍보: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포괄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4. 교육 및 기술 개발

- 기후 교육 통합: 모든 교육 단계에서 기후 행동을 위한 포괄적 교육 과정을 도입합니다.
-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청년이 녹색 경제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5. 인권 및 문화-자연 연계 강화

- 인권 중심 접근: 취약 계층 청년들이 기후 정책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보호를 보장합니다.
- 전통 지식 활용: 지역 사회의 전통 및 지속 가능한 관행을 통합하여 기후 정책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이 권고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 [참고 2] 그룹 ‘세븐틴’ 소개

세븐틴은 13명의 멤버, 3개의 유닛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다. 2015년 5월 첫 번째 미니 앨범 ‘17 CARAT’으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동시에 슈퍼루키로 급부상했으며, 팀 내 세 개의 각기 다른 유닛(힙합팀, 보컬팀, 퍼포먼스팀)이 하나의 그룹에 공존하며 자체제작 아이돌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각 팀 별로 전반적인 앨범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세븐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데뷔 직후 슈퍼루키, 자체제작돌, 청량돌이라는 수식어에서 현재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세돌로서 가요계 속 그들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중이다.<sup>2)</sup>



2) 출처: 세븐틴 공식 홈페이지(<http://www.seventeen-17.com/>)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VII.

#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1. 참가 목적
2. 대표단 명단
3. 주요 활동



---

## VII

#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

### 1 참가 목적

-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유네스코 각종 사업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제반 정책 동향 파악
- 한국 관심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활동 홍보

### 2 대표단 명단

- 일반대표(4인)
  -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 이경아 공공문화외교국장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교체대표(5인)
  - 이정우 주유네스코대표부 공사참사관
  - 김지영 유네스코과 과장
  - 오응석 주유네스코대표부 참사관
  - 이선영 유네스코과 외무사무관
  - 권인화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서기관
- 자문단(24명)
  - (유네스코과) 이가혜 외무행정관

- (주유네스코대표부) 방희경 3등서기관, 홍보강 주재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우진 센터장, 전진성 센터장, 이선경 실장, 김은영 팀장, 윤선이 팀장, 김보영 선임전문관, 이동현 선임전문관, 이용주 선임전문관, 손다희 전문관, 김계신 전문관, 이영은 전문관, 최은율 청년대표, 최혜령 청년대표
- 채재은 교육분과 위원(가천대학교 교수)
- 한건수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위원(강원대학교 교수)
- (유네스코아태교육원) 임현묵 원장, 김광현 실장, 조유진 전문관, 김혜수 전문관보
- (국제무예센터) 조성식 선임전문관, 이미소 저문관

### 3 주요 활동

-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 본회의 및 일반정책토론,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 등 회의 참석 및 발언
  - ※ 11월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 수석대표 기조연설
- 제10차 국가위원회 총회 참석
- 기타 회의 및 행사 참석
  - 11월 14일 청년포럼 중 세븐틴 세션 구성 및 진행
- 업무 협의
  - 본부 사무국,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 간 업무 협의
- 주요 인사 면담 등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VIII.

# 참고자료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2. 사진 자료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Speech of the Republic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ral Policy Debate of the 42n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Madame la Présidente de la conférence générale,  
Simona Mirela Miculescu,

Madame la Présidente du Bureau exécutif,  
Tamara Rastovac Siamashvili,

Madame la Directrice générale, Audrey Azoulay,

Distingués délégués,  
Vos Excellences, Mesdames et Messieurs,

C'est un réel privilège pour moi de prendre part à la  
42ème(quarante-deuxième) Conférence générale de l'UNESCO.

J'aimerais tout d'abord adresser mes félicitations les  
plus sincères à Madame Simona Mirela Miculescu,  
Présidente de la Conférence générale,  
pour son élection parfaitement méritée.

Je suis persuadé que la Conférence  
générale rencontrera un plein succès  
sous votre leadership éclairé.

Je tiens aussi à exprimer toute notre plus profonde gratitude  
à Madame la Directrice générale Audrey Azoulay  
pour son engagement indéfectible dans la promotion de la  
mission de l'UNESCO qui vise à favoriser la paix mondiale  
à travers la collaboration internationale.

Le monde fait face à une multitude de défis complexes qui vont de l'urgence de la question du changement climatique, du ralentissement global de l'économie, à la guerre qui déchire actuellement l'Ukraine.

Nous sommes, de plus, confrontés à une grave crise humanitaire au Moyen-Orient.

Des civils innocents endurent de terribles souffrances à cause de ce conflit armé entre Israël et le Hamas.

La République de Corée forme le vœu que la situation puisse connaître une rapide désescalade.

Que nos incessantes prières fassent qu'aucune autre vie ne soit perdue dans cette tragique épreuve.

Soyons tous unis pour défendre la noble cause de l'humanité.

La Corée apporte son ferme soutien à la stratégie de moyen-terme 2022-2029 de l'UNESCO, et notamment à la valorisation notre jeunesse.

Lors d'une représentation spéciale organisée en marge du 13ème Forum de la jeunesse, nous allons mettre en vedette le groupe de K-POP internationalement acclamé «Seventeen».

Cet événement servira de plateforme pour célébrer ces jeunes qui agissent pour changer notre monde en appelant à une action concertée afin de répondre à l'urgence du changement climatique.

Nous vous invitons tous à nous rejoindre pour rendre hommage à l'incroyable potentiel de notre jeunesse.

Nous apportons aussi notre entier soutien au Projet de programme et de budget pour 2024-2025 (42 C/5).

Nous en profitons pour exprimer notre gratitude au secrétariat pour son dévouement indéfectible et son travail mené avec tant d'ardeur.

Alors que nous nous rapprochons de la date limit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nous espérons grandement que ce budget jouera un rôle central dans le plein succès de leur mise en œuvre.

La Corée restera déterminée pour soutenir l'action menée par l'UNESCO dans le domaine culturel.

Aujourd'hui, la Corée est la nouvelle locomotive de la culture contemporaine.

Elle est disposée à œuvrer plus encore pour un monde où sera célébrée la diversité culturelle et où sera chérie la richesse du patrimoine commun de l'humanité.

Je pense néanmoins que nous n'avons pas encore fait valoir l'entier potentiel de la coopération entre la Corée et l'UNESCO.

La Corée va s'employer pour considérablement améliorer notre relation.

Notre engagement est de procurer un soutien sans précédent aux pays participants pour qu'ils puissent présenter l'unicité de leur patrimoine culturel au moyen d'une technologie de pointe absolument inédite.

La quête de la Paix est un long cheminement qui demande un dévouement inébranlable et une vigilance de tous les instants.

La République de Corée est prête à œuvrer main dans la main avec l'UNESCO pour remplir les nobles idéaux de l'Organisation.

Je vous remercie.

시모나 미렐라 미쿨레스쿠 총회 의장님,  
타마라 라스토박 시마아쉬빌리 집행이사회 의장님,  
오드레이 아즐레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쿨레스쿠 의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의장님의 통솔력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평화를 증진한다는  
유네스코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신  
아줄레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고귀한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두 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2022-2029 중기전략과  
청년 의제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우리는 제13차 청년포럼 계기에 K-POP 그룹  
“세븐틴”의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을 기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놀라운 잠재력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2024-2025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유네스코 사무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속가능목표(SDG) 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이 예산이 SDG 이행 성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수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대문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류 공동 유산의 풍요로움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력의 잠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유네스코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국들이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국 문화유산의 고유성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끊임없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긴 여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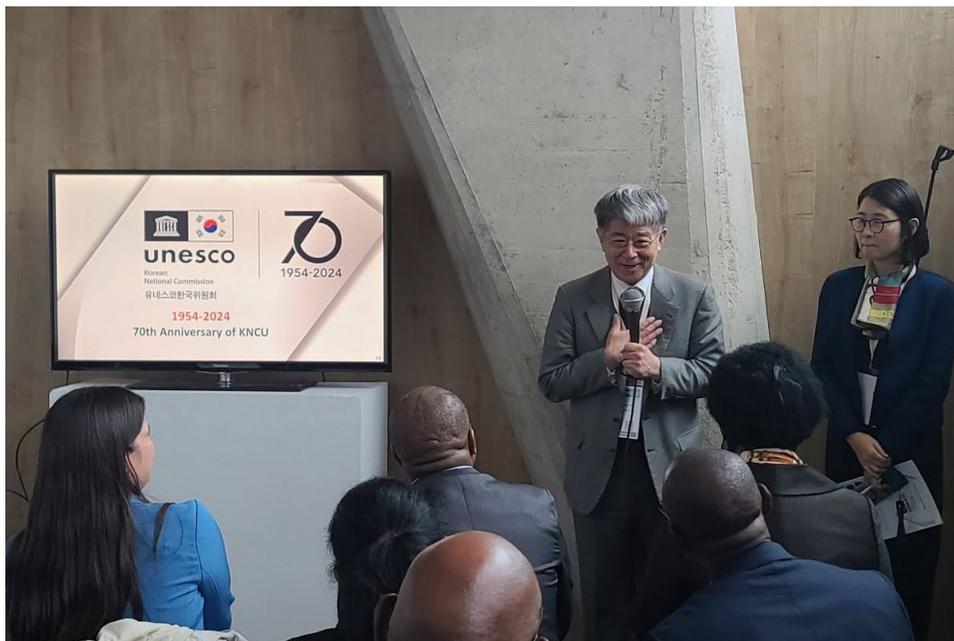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사진 자료



유네스코 오드레 아즐리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외교부 박진 장관 면담(2023. 11. 11.)



제10차 국가위원회 총회 참석 중인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2023. 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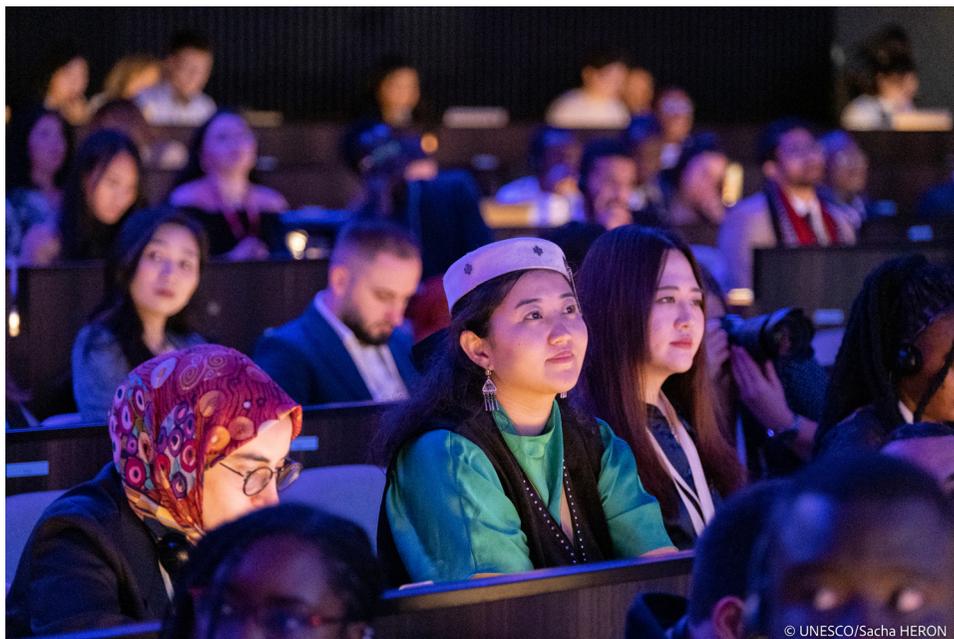
42차 총회 계기 일반정책토론 대한민국 기조발표(박진 장관, 2023. 11. 10.)



제13차 청년포럼 계기 세븐틴 세션 공연 중(2023. 11. 14.)



제13차 청년포럼 계기 세븐틴 세션 공연 중(2023. 11. 14.)



제13차 청년포럼 본 세션 (2023. 11. 14.)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개회 (2023. 11. 7.)



제42차 총회 계기 파트너스 포럼 중(2023. 11. 14.)



제13차 청년포럼 계기 세븐틴 세션 개최시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인사말(2023. 11. 14.)

##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기획 및 발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편집 김은영 이동현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ap.center@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간행물 등록번호 IR-2024-BK-1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보고서는 외교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제4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Report on the 42n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